

# 生脈散의 方義에 대한 考察 - 張元素와 李東垣의 論說를 중심으로 -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助教授  
安鎭燾\*

## A Study on the Meaning of Shengmaisai -Focusing on the argument of Zhangyuansu and Lidongyuan-

Ahn Jinhee\*

Assistant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Shengmaisai in relation to original qi based on the discussion of Zhangyuansu, Lidongyuan and other doctors.

**Methods** : Discussion of Shengmaisai made by Zhang, Li and others were examined. Afterwards, the medicinal properties of renshen, maimendong, and wuweizi as written in the *Bencaogangmu*, *Donguibogam*, *Benjingshuzheng* and texts of Zhang and Li were studied in relation to original qi. Related concepts such as '肺中伏火'·'補肺中元氣不足'·'補天真元氣'·'夏食寒' were analyzed as well.

**Results & Conclusions** : 1. Various pathology related to deficiency in original qi could act as internal pathogen for Shengmaisai application with which external factors such as summerheat and dampness heat meet results in most damage in the Lung metal. Therefore the upper body Lung is emphasized as pathogen. 2. The pathology of Shengmaisai application is depletion of humor, which should be refined, due to summer or dampness heat in a state of original qi deficiency which damages the Lungs, disabling its function of managing clear and pure qi. 3. The disease pattern for Shengmaisai in relation to original qi, according to other doctors, includes symptoms related to the Lungs such as dryness in the mouth due to excessive perspiration, blankness, loss of consciousness, shortness of breath, coughing, fast breathing, along with general bodily symptoms such as heavy sensation of the body, lethargy, difficulty walking, limping. These general bodily symptoms are due to either qi deficiency of the Lung, or humor deficiency due to failure of qi convergence in the lower body, or symptoms caused by Jing deficiency in severe cases. Symptoms related to problems in the lower body could manifest as dysfunction in urination and defecation, weakness in the limbs caused by original qi deficiency. 4. The Lungs circulate the clear and pure qi, converging qi and creating humor to assist the Triple Burner's Qi-Humor metabolism, enabling smooth communication of original qi throughout the body. With the original qi well tonified, the shen mechanism which is rooted in original qi allows for autonomous and consistent qi circulation within the body. Therefore, both Zhang and L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original qi. The property of Shengmaisai is explained as 'supplement qi/create liquid, convergence of yin/stop perspiration'. Zhang and Li explained its property as managing the circulation of original qi, to tonify Lungs' original qi and origin of water-humor.

**Key words** : Shengmaisai(生脈散), Renshen(人參), Maimendong(麥門冬), Wuweizi(五味子), Original Qi(元氣), Zhangyuansu(張元素), Lidongyuan(李東垣)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443, Samrye-ro, Samrye-eup, Wanju-gun, Jeollabuk-do, Korea.

Tel : +82-63-290-1562, Email : jini@woosuk.ac.kr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August 6, 2024), Revised(August 16, 2024), Accepted(August 19, 2024)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序論

生脈散은 人參, 麥門冬, 五味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철 더위와 갈증, 많은 땀을 흘려서 기진맥진할 때 元氣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처방으로 淸暑益氣湯과 함께 한의사들이 많이 처방하고 있으며, COVID-19의 회복기에 氣陰兩虛하여 기침과 인후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다용하고 있고<sup>1)</sup>,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生脈散은 조선 시대 역대 여러 왕들의 여름철 補藥으로도 많이 활용되었다<sup>2)</sup>.

보통 한 處方의 方義를 분석할 때 病因·病機·病證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볼 수 있는데, 方劑學 교과서에는 方義를 病因·病機·病證으로 분류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 우선 生脈散의 作用을 ‘益氣生津, 斂陰止汗’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作用이라고 함은 方義를 한두 단어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生脈散 적응증의 설명 중 ‘久咳傷肺, 氣陰兩虛證’은 生脈散의 內因을 肺氣虛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暑熱로 인한 耗氣傷陰證’은 暑熱이라는 外因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病機에 대해서는 久咳傷肺로 인한 氣陰兩虛證은 肺氣가 소모됨에 따라 肺陰도 점차 손상된다고 하였고, 暑熱로 인한 耗氣傷陰證은 暑熱邪로 陽勝則陰病하여 땀이 많이 나서 傷陰하며, 津液이 손상될수록 氣가 소모되어 氣陰兩虛에 이른다고 하였다. 病證에 대해서는 ‘久咳傷肺, 氣陰兩虛證’에 乾咳少痰, 短氣自汗, 口乾舌燥, 脈虛細가 나타나고, ‘暑熱로 인한 耗氣傷陰證’에 汗多神疲, 體倦乏力, 氣短懶言, 咽乾口渴, 舌乾紅少苔, 脈虛數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up>3)</sup> 한편 生脈散 처방을 처음으로 기재한 張元素의 『醫學啓源』에는

生脈散의 主治를 ‘補肺中元氣不足’<sup>4)</sup>이라고 하였고, 李東垣은 『內外傷辨惑論』에서 ‘補天真元氣’<sup>5)</sup>를 말하는 등 元氣를 부각시켜 方劑學 교과서의 ‘氣陰兩虛’와 표현상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論者는 生脈散의 方義 및 元氣와의 상관성에 대해 張元素와 李東垣의 논설을 중심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生脈散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中國의 嚴永淸 등은 歷代文獻 조사를 통해 生脈散의 淵源, 生脈散 劑量의 차이, 生脈散의 功用主治를 다루어 諸家의 논설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쳤고, 生脈散의 方義나 元氣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sup>6)</sup>, 趙子明 등도 生脈散의 歷史沿革 부분에서 生脈散의 淵源, 含義, 效能主治, 劑量, 劑型 등의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다루었고, 生脈散의 方義나 元氣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sup>7)</sup>. 孫云은 生脈散의 源流에서 淵源이 되는 『醫學啓源』의 내용과 흐름이 되는 『內外傷辨惑論』·『醫方考』의 生脈散 논설을 다루었으며, 生脈散에서 변화 발전된 처방들의 규율을 탐토했고, 心肺 질환과 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임상 응용을 다루었으나, 또한 生脈散의 方義나 元氣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sup>8)</sup> 張勝 등은 生脈散의 創製는 張元素의 藥物氣味厚薄 이론, 升降浮沈, 臟腑辨證의 用藥規律, 五味와 五臟 관계에 의거한 補瀉 등의 학술사상을 체현한 것으로 보아 일정 정도 張元素의 학술 사상과 연계하여 生脈散의 創方을 바라보았고, SARS 환자에게 生脈散注射液을 투여하여 치료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生脈散이 肺中元氣不足을 補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하는 등 元氣를 언급했으나 그 내용이 깊지 않았다<sup>9)</sup>. 王世華 등은 生脈散의 적

1) 보건복지부 한국한약진흥원 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 서울. 한국한약진흥원. 2024. p.35. “기침과 인후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헹개연교탕이나 청상보하탕, 맥문동탕, 생맥산을 처방할 수 있다.”  
2) 생맥산. 승정원일기. 2000. [cited on July 25, 2024]; Available from: <https://sjw.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 승정원일기 웹사이트에서 ‘생맥산’을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총 871건의 내용이 검색되는데, 인조(67), 효종(11), 현종(30), 숙종(189), 경종(86), 영조(419), 정조(30), 순조(39)였다.  
3) 한의방제학 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韓醫方劑學. 파주. 군자출판사. 2020. pp.576-581.

4)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6-57. “麥門冬：氣寒，味微苦甘，治肺中伏火，脈氣欲絕。加五味子，人參二味，爲生脈散，補肺中元氣不足，須用之。”  
5)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647-651. “聖人立法，夏月宜補者，補天真元氣，非補熱火也，夏食寒者，是也。”  
6) 嚴永淸, 吳建新, 錢健雄. 生脈散의 歷代文獻考査. 中國中藥雜誌. 1989. 14(5), pp.1-11.  
7) 趙子明, 常潔, 常兆生. 人參制劑-生脈散의 歷史沿革及現代研究. 長春中醫學院學報. 1994. 10(41), pp.107-108.  
8) 孫云. 生脈散源流衍化及應用. 山東中醫學院學報. 1996. 20(5), pp.320-324.

응 병증을 生脈散 原方, 加減方, 合方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가시화하여 元氣虧虛證, 肺氣虧虛證, 暑傷津氣證, 津氣欲脫證, 津傷化燥證, 氣虛證, 暑證, 熱傷元氣證 등으로 나누고, 汗多, 口渴, 短氣, 身重 등 病證 간의 상호 연관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어 生脈散의 方義 중 주로 病證을 다루면서 元氣虧虛證, 熱傷元氣證과 같이 元氣가 들어가는 病證을 언급했으나, 元氣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sup>10)</sup>.

中國뿐만 아니라 韓國에서도 生脈散을 다룬 논문이 많았지만, 方義에 대한 考察 논문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生脈散의 활용에 초점을 둔 실험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sup>11)</sup>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生脈散의 方義와 관련한 체계적 考察 논문이 부족하고 元氣와의 상관성을 다룬 논문도 부족하기에 論者는 生脈散의 方義 및 元氣와의 상관성에 대해 張元素와 李東垣의 논설을 중심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본문 앞부분에서 張元素와 李東垣의 生脈散 관련 논술 및 여러 醫家들의 生脈散 관련 논술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뒤이어 生脈散을 구성하고 있는 人參, 麥門冬, 五味子の 藥性を 『本草綱目』·『東醫寶鑑』·『本經疏證』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 서적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本草綱目』은 明代 이전의 本草學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기에 선택하였고, 『東醫寶鑑』은 고려

시대의 鄉藥과 金元醫學의 총합이며<sup>12)</sup>, 『東醫寶鑑·湯液篇』은 中國 전통 本草 서적 계열인 『證類本草』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자생 약재와 鄉藥을 중심으로 새로 재편하여 한국적인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고<sup>13)</sup>, 『本經疏證』은 가장 오래된 『神農本草經』의 내용을 방제학적 관점에서 풀어내었고, 『內經』·『傷寒論』과 金元 이후의 諸家說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藥理를 분석하고 약물의 形色氣味·性情 등을 관찰하여 陰陽五行으로 귀납함으로써 藥效를 考證했기 때문이다<sup>14)</sup>. 본문 뒷부분에서는 張元素의 논술 중 ‘肺中伏火’ 및 ‘補肺中元氣不足’과 李東垣의 논술 중 ‘補天真元氣’ 및 ‘夏食寒’을 살펴보고, 이와 아울러 張元素와 李東垣의 책에서 설명한 人參, 麥門冬, 五味子の 藥性を 살펴보고자 한다. 考察에서는 生脈散에 대한 諸家의 논설들을 토대로 生脈散의 方義를 病因, 病機, 病證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 張元素가 生脈散의 효능을 ‘補肺中元氣不足’이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考察하며, “生脈散은 肺의 元氣를 補하는 藥이다.”라는 것을 명제로 삼아 주요 本草書 및 『東醫寶鑑』에서 生脈散을 이루고 있는 人參, 麥門冬, 五味子の 藥性 내용 중 실제로 元氣를 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生脈散의 方義에 대한 考察 논문이 元氣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임상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기능성 음료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II. 本論

生脈散의 처방명, 약물의 구성 및 主治를 처음으

9) 張勝, 譚聖球, 李生茂等. 生脈散探源. 遼寧中醫雜誌. 2010. 37(10). pp.1918-1919.

10) 王世華 外 3人. 基于古籍文獻的生脈散適應病證可視化分析. 中醫雜誌. 2019. 60(9). pp.745-749.

11) 신선호. 生脈散이 實驗動物의 心筋細胞에 미치는 影響.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p.1-27.

김승모. 신경세포종의 고사에 미치는 生脈散의 효과 및 기전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1-42.

이상현. 生脈散과 구성 약물의 성분 분석 및 抗酸化 효능 비교. 대구한의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1-52.

문효. 生脈散과 生脈散加味方이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p.1-54.

김의중. Bleomycin 유도 폐섬유화 마우스 모델에서 生脈散과 Pifrenidone의 효과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pp.1-51.

上記 실험 논문에서는 生脈散의 淵源을 모두 李東垣의 『內外傷辨惑論』으로 기술하였다.

12)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對한 研究 -許波의 『東醫寶鑑』을 통하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1. vol 5. pp.137-150.

13) 오재근.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의 『증류본초』 활용 - 『향약집성방』 『향약본초』 『동의보감』 『탕액편』을 중심으로 -.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5). pp.107-118.

14) 林鎭錫, 朴贊國. 鄒澍의 醫學思想에 對한 研究-藥理說을 中心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5. vol 9. pp.381-429.

로 기술한 것은 易水學派인 張元素의 『醫學啓源』(1186)이고, 張元素 이후로 그의 제자인 李東垣 외에도 여러 의가들이 生脈散에 대해 많이 논했는데, 生脈散에 대한 논설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生脈散에 대한 諸家の 논설

### 1) 張元素의 논설

張元素는 歷代 醫家 중 生脈散을 처음으로 기술하였으며, 生脈散의 主治를 기술함에 있어서 元氣를 강조하였다. 『醫學啓源·用藥備旨·藥類法象·燥降收』에 麥門冬의 氣味와 主治를 기재했는데, 麥門冬이 微苦甘寒하여 肺中の 伏火를 치료하고 脈氣가 끊어지려는 것을 치료하며, 五味子·人參 두 가지 약물을 더하면 生脈散이 된다고 하였고, 生脈散은 肺中の 元氣가 부족함을 補할 때 사용해야 한다<sup>15)</sup>고 하는 등 生脈散이 肺中の 元氣 부족을 치료함을 강조하였다. 張元素가 生脈散을 거론한 麥門冬 조문에서 人參과 五味子の 藥性을 함께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人參에 대해서 補元氣·止渴生津하고<sup>16)</sup>, 五味子에 대해서 五臟의 氣를 크게 補하며, 生脈散 구성에 黃芪·黃蘗을 더하여 精神과 元氣를 모두 충족하게 한다<sup>17)</sup>고 하는 등 生脈散 치료에 있어서 元氣를 강조하였다.

### 2) 李東垣의 논설

李東垣은 生脈散의 主治를 기술함에 있어서 天真元氣를 강조하였다. 李東垣은 張元素의 제자로 『內外傷辨惑論』(1247)과 『脾胃論』(1249)에서 生脈散에 대해 설명했다. 『內外傷辨惑論·暑傷胃氣論』에서 脾胃가 허약한 사람이 장마철에 장마비가 내리고 더우

면 땀이 많이 나고 몸이 무거우며 숨도 짧아지는데, 西方과 北方의 차고 맑은 기운이 끊어져 거둬 감축되면 빠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진다고 했다. 聖人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여 법을 세우셨는데, 여름에 熱火를 補하는 것이 아니라, 天真元氣를 補해야 한다고 하면서 生脈散을 소개하였고, 人參은 甘味로 補氣하고, 麥門冬은 苦寒하여 瀉熱·補水之源하며, 五味子の 酸味로 燥金인 肺를 清肅하게 한다고 하였다.<sup>18)</sup> 『脾胃論』에서도 脾胃 허약자가 장마철에 濕熱邪로 인하여 몸이 무겁고 숨도 짧아지며 심하면 四肢가 허약해져 잘 걷지 못함에 肺氣를 자양하여 水之上源을 補하고 庚金인 大腸도 邪熱을 받지 않게 하며, 여름에 天眞의 元氣를 補해야 한다고 하면서 生脈散을 소개했다. 다만, 『脾胃論』에서는 熱이 元氣를 손상시키고, 生脈의 脈이 元氣라는 것을 추가로 밝혔다.<sup>19)</sup> 또한 같은 책에서 火의 치성함이 지극하여 金이 엎드려 있을 때 寒水가 몸에서 끊어지니, 生脈散으로 급히 구제하여 그 濕熱을 제거한다고 하면서 人參의 甘味로 亢盛한 心火를 瀉하고, 五味子를 佐藥으로 써서 수렴시켜주며, 麥門冬의 微

18)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647-651. “夫脾胃虛弱之人, 遇六七月霖雨, 諸物皆潤, 人汗沾衣, 身重短氣, 更逢濕旺, 助熱爲邪, 西北二方寒清絕之矣. 人重感之, 則骨乏無力, 其形如夢寐間, 朦朧如煙霧中, 不知身所有也. 聖人立法, 夏月宜補者, 補天真元氣, 非補熱火也, 夏食寒者, 是也. 故以人參之甘補氣, 麥門冬苦寒, 瀉熱補水之源, 五味子之酸, 清肅燥金, 名曰生脈散. 孫眞人云, 五月常服五味子以補五臟之氣, 亦此意也.”

19)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687-692. “夫脾胃虛弱, 遇六七月間河漲霖雨, 諸物皆潤, 人汗沾衣, 身重短氣, 甚則四肢痿軟, 行步不正, 脚軟, 眼黑欲倒, 此腎水與膀胱俱竭之狀也, 當急救之. 滋肺氣, 以補水之上源. 又使庚大腸, 不受邪熱, 不令汗大泄也. 汗泄甚則亡津液, 亡津液則七神無所依. 經云, 津液相成, 神乃自生. 津者, 庚大腸所主, 三伏之義, 爲庚金受囚也. 若亡津液, 汗大泄, 濕令亢甚, 則清肅之氣亡, 燥金受囚, 風木無可以制. 故風濕相搏, 骨節煩疼, 一身盡痛, 亢則害, 承乃制, 是也. 孫思邈云, 五月常服五味子, 是瀉丙火, 補庚大腸, 益五臟之元氣. 壬膀胱之寒已絕於巳, 癸腎水已絕於午, 今更逢濕旺, 助熱爲邪, 西方北方之寒清絕矣. 聖人立法, 夏月宜補者, 補天元之眞氣, 非補熱火也. 今人夏食寒是也. 爲熱傷元氣, 以人參, 麥門冬, 五味子, 生脈. 脈者, 元氣也. 人參之甘, 補元氣, 瀉熱火也. 麥門冬之苦寒, 補水之源, 而清肅燥金也. 五味子之酸, 以瀉火, 補庚大腸與肺金也.”

15)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6-57. “麥門冬: 氣寒, 味微苦甘, 治肺中伏火, 脈氣欲絕. 加五味子, 人參二味, 爲生脈散, 補肺中元氣不足, 須用之.”

16)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4-56. “人參, ……其用有三 補元氣一也. 止渴二也. 生津液三也.”

17)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6-57. “五味子: 氣溫味酸, 大益五臟氣. 孫眞人曰, 五月常服五味子, 以補五臟之氣. 遇夏月季夏之間, 令人困乏無力, 無氣以動, 與黃芪, 人參, 麥門冬, 少加黃蘗, 銜煎湯服之, 使人精神, 元氣兩足, 筋力涌出.”

苦寒은 金의 자리에서 水의 근원을 자양하여 肺氣를 淸肅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20)</sup> 李東垣은 生脈散이 補天眞元氣한다고 하여 張元素의 元氣 논설을 계승하였고, 人參으로 補元氣하고, 麥門冬으로 補水之源하며, 五味자로 淸肅燥金한다고 하는 등 元氣를 補하는 것이 五臟 중 肺와 가장 관련이 깊음을 말하였다.

### 3) 吳崑의 논설

吳崑은 生脈散의 논설에서 正氣와 邪氣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吳崑은 『醫方考·暑門』(1584)에서 처방 구성에 生脈散을 포함하고 있는 淸暑益氣湯 설명 중 “심한 더위가 제멋대로 흘러서 肺金이 病을 받음에, 人參·五味子·麥門冬은 하나는 補肺하고, 하나는 收肺하고, 하나는 淸肺하니, 이 세 개의 약물을 이름하여 生脈散이라고 한다.”<sup>21)</sup>라고 하였고, 「虛損勞瘵門」에서 生脈散에 대해 氣가 다한 경우에는 正氣가 적어지고 邪氣가 많아져 혈떡임이 많고 말을 적게 함에 生脈散으로 主治한다고 하였으며, 生脈散 病證을 비유적으로 小人의 道가 사라지고, 君子의 道가 사라지는 형상이라고 했다. 또한 「暑門」의 生脈散 설명과 비슷하게 人參으로 補肺하고, 麥門冬으로 淸肺하며, 五味자로 斂肺하여 養氣의 道를 끝낸다고 했으며, 生脈이라는 처방명에 대해서는 脈이 氣를 얻으면 가득 차고, 氣를 잃으면 약해지므로 生脈이라고 한다고 했다.<sup>22)</sup> 吳崑이 앞선 張元素·李東垣과 똑

같이 元氣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君子의 道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正氣는 元氣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生脈散이 「虛損勞瘵門」에 분류되어 기술되고 있음도 元氣와의 관계성을 시사하고, 人參·麥門冬·五味子が 補肺·淸肺·斂肺한다고 하여 五臟 중 肺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柯琴의 논설

柯琴은 生脈散 논설에 있어서 肺胃腎 三氣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脈이 肺로 귀결됨을 강조하였다. 柯琴의 논설은 羅美가 찬집한 『古今名醫方論』(1675)에 나타나는데, 柯琴은 生脈散에 대해 肺가 이기지 못하는 熱에 의해 손상을 받은 賊邪가 되니, 孫眞人이 급히 元氣를 복돋아서 生脈으로써 처방을 이름하였다고 하였고<sup>23)</sup>, 麥門冬은 甘寒하여 權衡과

23) 李東垣이 『內外傷辨惑論』에서 “名曰生脈散, 孫眞人云, 五月常服五味子以補五臟之氣, 亦此意也.”(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647-651.)라고 하였고, 『格致餘論·夏月伏陰在內論』에서 “孫眞人製生脈散, 令人夏月服之.”(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17.)라고 하는 등 生脈散의 淵源과 관련하여 孫眞人이 지은 『千金方』(『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의 총칭) 계열의 서적이나 『內外傷辨惑論』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嚴永淸 등은 歷代文獻 조사를 통해 生脈散의 淵源이 『千金方』이나 『內外傷辨惑論』이 아니라 『醫學啓源』임을 考證해내었다(嚴永淸, 吳建新, 錢健雄, 生脈散의 歷代文獻考査, 中國中藥雜誌, 1989, 14(5), pp.1-11.). 柯琴의 논설 속에서 孫眞人 云云하며 生脈으로써 처방을 이름하였다고 했는데, 실제 『千金方』 계열의 서적에서는 生脈 혹은 生脈散이 들어간 문장이 나오지 않으며, 5월에五味자를 복용한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千金翼方·藥錄纂要·用藥處方』에서 약물의 효능에 따라 해당 약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補五臟하는 약물에五味자가 들어가 있었고, 이 외에도五味자는 益氣, 長陰陽益精氣, 長肌肉, 咳逆上氣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李景榮 등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15-24.). 元氣 관련해서는 『千金翼方·禁瘟疫時行』에서 “九眞行道, 邪氣敢當, 元氣洞達, 百邪消亡.”(李景榮 등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47.)이라고 했고, 『備急千金要方·調氣法』에서 “作禪觀之法, 閉目存思, 想見空中太和元氣, 如紫雲成蓋, ……”, 意專思存, 不得外緣, 斯須即覺元氣達於氣海.”(李景榮 등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938.)라고 하는 등 주로 수련을 통해 元氣를 통달시켜 瘟疫의 침입을 막거나 參禪을 통해 허공 중의 太和元氣가 마치 자색 구름이 덮은 듯함을 상상하고, 元氣가 氣海에 도달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같이 意念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고, 生

20)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701-706. “火熾之極, 金伏之際, 而寒水絕體, 於此時也. 故急救之以生脈散, 除其濕熱, 以惡其太甚. 肺欲收, 心苦緩, 皆酸以收之. 心火盛則甘以瀉之, 故人參之甘, 佐以五味子之酸. 孫思邈云: 夏月常服五味子, 以補五臟氣是也. 麥門冬之微苦寒, 能滋水之源於金之位, 而淸肅肺氣, 又能除火刑金之嗽, 而斂其痰邪. 復微加黃柏之苦寒, 以爲守位, 滋水之流, 以鎮墜其浮氣, 而除兩足之痿弱也.”

21) 吳崑 著, 醫方考, 서울, 醫聖堂, 1993, pp.61-67. “酷暑橫流, 肺金受病, 人參, 五味子, 麥冬, 一以補肺, 一以收肺, 一以淸肺, 此三物名曰生脈散.”

22) 吳崑 著, 醫方考, 서울, 醫聖堂, 1993, pp.161-162. “氣極者, 正氣少, 邪氣多, 多喘少言, 此方主之. 肺主氣, 正氣少, 故少言. 邪氣多, 故多喘. 此小人道長, 君子道消之象也. 人參補肺氣, 麥冬淸肺氣, 五味斂肺氣, 一補一淸一斂, 養氣之道畢矣. 名曰生脈者, 以脈得氣則充, 失氣則弱, 故名之.”

治節의 관리를 맡게 하고, 人參은 甘溫하여 後天 營衛의 근본을 補하며, 五味子는 酸溫하여 先天 天癸의 근원을 수렴하여, 水升火降하여 既濟의 이치에 부합하며, 生脈散은 張仲景의 『傷寒論』 治法 중 復脈의 법에 근본한다고 하였다. 熱이 무형의 氣를 손상하고 유형의 血을 손상하지 않았으므로 地黃·阿膠·麻仁·大棗를 쓰지 않았고, 心은 脈을 주관하여 이완되는 것을 괴로워하니, 급히 酸味를 먹어서 수렴해주므로 甘草를 없애고 五味子를 더한다고 하면서 脈은 腎에서 도움을 받아 시작하고, 胃에서 도움을 받아 생겨나며, 肺에서 모인다<sup>24)</sup>고 하는 등 脈이 肺로 귀결됨을 강조하였다. 柯琴은 生脈散을 復脈湯(= 炙甘草湯)과 비교하면서 熱이 氣를 손상하여 아직 血에까지 미치지 않았으므로 血劑를 쓰지 않았고, 甘草 대신에 五味子를 쓴 것에 대해서는 下焦 天癸의 元氣를 얻어서 살리고자 한 것이라면서 元氣와 腎을 강조하였고, 人參은 胃와, 麥門冬은 肺와 연관시켜 生脈散을 설명함에 있어서 肺胃腎 三氣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先天腎과 後天胃의 도움으로 肺朝百脈하여 脈이 肺로 귀결됨을 강조하였다.

### 5) 汪昂의 논설

汪昂은 生脈散 논설에서 그 作用을 保肺生脈이라고 하면서 脈을 설명하기 위해 心肺를 언급했으나, 保肺라고 하여 肺에 더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汪

脈散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24) 羅美 撰. 李飛·武丹丹·黃瓊磁 校注. 古今名醫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p.18-19. “傷熱是從所不勝來者, 爲賊邪, 非先從滋化其源, 挽回于未絕之前, 則一絕而不可復. 此孫真人爲之急培元氣, 而以生脈名方也. 麥冬甘寒, 清權衡治節之司, 人參甘溫, 補後天營衛之本, 五味酸溫, 收先天天癸之原. 三氣通而三才立, 水升火降, 而合既濟之理矣. 仲景治傷寒有通脈、復脈二法. 少陰病裏寒外熱, 下利清穀, 脈微欲絕者, 制通脈四逆湯, 溫補以扶陽; 厥陰病外寒內熱, 心動悸, 脈結代者, 制復脈湯, 涼補以滋陰. 同是傷寒, 同是脈病, 而寒熱異治者, 一挽坎陽之外亡, 一清相火之內熾也. 生脈散, 本復脈立法, 外無寒, 故不用薑、桂之辛散; 熱傷無形之氣, 未傷有形之血, 故不用地黃、阿膠、麻仁、大棗, 且不令其泥膈而滯脈道也. 心主脈而苦緩, 急食酸以收之, 故去甘草而加五味矣. 脈資始于腎, 資生于胃, 而會于肺. 仲景二方重用甘草者, 全賴中焦穀氣, 以通之復之, 非有待于生也; 此欲得下焦天癸之元氣以生之, 故不藉甘草之緩, 必取資于五味之酸矣.”

昂은 『醫方集解』(1682)에서 生脈散에 대해 手太陰·手少陰藥으로 肺主氣하는데, 肺氣가 왕성하면 四臟의 氣도 모두 왕성하고, 肺氣가 虛하므로 脈이 끊어져 숨이 짧아진다고 하였고, 君藥인 人參은 甘溫하여 크게 肺氣를 補하고, 臣藥인 麥門冬은 止汗하고, 潤肺滋水·清心瀉熱하며, 佐藥인 五味子는 酸溫하여 斂肺生津하고 耗散된 氣를 수렴한다고 하면서 心은 脈을 주관하고, 肺는 모든 脈을 조회하니, 補肺清心하면 氣가 가득하게 차서 脈이 되돌아오므로 生脈이라고 한다고 했고, 生脈散은 保肺를 위주로 한 처방으로 무더울 때 새벽에 복용하여 益氣祛暑할 수 있다고 했다.<sup>25)</sup> 汪昂은 生脈散의 主治 技術에서 熱傷元氣를 말한 후 이에 대한 註釋에서 生脈의 脈을 설명하기 위해 心肺를 함께 언급했으나, 生脈散이 保肺를 위주로 한다고 말함으로써 心肺 중 肺에 더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 6) 馮兆張의 논설

馮兆張은 生脈散 논설에서 그 作用을 生津止渴이라고 하면서 肺에 중점을 두었고, 運氣學的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 독특했다. 『馮氏錦囊秘錄』(1702)에서 生脈散에 대해 生津止渴하고, 熱이 元氣를 손상하여 숨이 짧아지고 권태로우며 입이 건조하고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또한 運氣的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했다. 赫曦, 즉 火運이 太過한 해에 金이 제어를 받아서 寒水를 生化하는 근원, 즉 肺氣를 끊어지게 하므로 숨이 짧아지고 권태로우며 땀이 난다고 하였고, 補氣하는 人參을 君藥으로 삼은 것은 所謂 그 肺를 손상시킨 경우 그 氣를 더해주는 것이며, 五味子는 酸味로 수렴하여 肺의 소모되고 흩어짐을 거두며, 麥門冬은 甘寒하여 肺經의 건조하고 마른 液을 적시는 역할을 하는데, 세 약이 모두 그 이기지 못함을 도와 火邪로 하여금 害가 될 수

25) 項長生 主編. 汪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8. “保肺生脈(『千金』). 治熱傷元氣, 氣短倦怠, 口渴多汗, 肺虛而咳. ……; 此手太陰、少陰藥也. 肺主氣, 肺氣旺則四臟之氣皆旺, 虛故脈絕短氣也. 人參甘溫, 大補肺氣爲君, 麥冬止汗, 潤肺滋水, 清心瀉熱爲臣, 五味酸溫, 斂肺生津, 收耗散之氣爲佐. 蓋心主脈, 肺朝百脈, 補肺清心, 則氣充而脈復, 故曰生脈也. 夏月炎暑, 火旺剋金, 當以保肺爲主, 清晨服此, 能益氣而祛暑也”

없게 한다고 하면서 司天이 火에 속하는 해에 時令이 燥熱할 즈음에 生脈散이 더욱 요긴한 약이 된다고 강조하였다.<sup>26)</sup> 馮兆張은 生脈散의 主治 기술에서 熱傷元氣를 말한 후 運氣의인 측면을 언급하면서 生脈散이 補氣·濡肺·收肺함으로써 寒水生化的 근원인 肺를 회복시키는 처방임을 강조하였다.

### 7) 王子接의 논설

王子接은 『絳雪園古方選註』(1732)에서 脈을 설명하기 위해 心肺를 언급하였고, 脈中の 氣는 腎陰의 도움을 받음을 강조했으나, 脈이 결국 肺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生脈散의 散은 胃에 약을 머무르게 했다가 천천히 그 약성을 운행하는 것이고, 生脈에서 脈은 心에서 주관하고 肺에서 발원하지만, 반드시 腎陰의 도움을 빌리므로, 『內經』에서 君火의 아래에 陰精이 그것을 받든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麥門冬은 肺經의 治節의 관직을 맡게 하고, 五味子是 先天 癸水의 근원을 수렴하며, 人參은 麥門冬과 五味子를 인솔하여 三焦에서 氣를 모아 肺에 귀속시켜 모든 脈을 조화하니, 하늘의 구름과 안개가 맑으면 흰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으므로 生脈이라고 하였다.<sup>27)</sup> 王子接은 하늘의 구름과 안개가 맑으면 흰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하여 生脈散이 肺의 肅降 기능을 되살려 液(=水精)의 고갈을 회복하고자 함을 비유적으로 말하였고, 五味子是 腎과, 麥門冬은 肺와 연관시켰으며, 人參은 앞의 두 약을 이끌어 三焦에서 氣를 모아 肺에 귀속되어 肺朝百脈한다고 하는 등 脈이 肺로 귀결됨을 강조하였다.

### 8) 吳謙의 논설

吳謙은 生脈散 논설에 있어서 肺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吳謙은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1742)의 生脈散 主治에서 熱傷元氣를 기술한 후 이에 대한 註釋에서 暑熱이 肺를 손상시키면 氣도 또한 손상되어 숨이 짧아지고 권태로우며 숨이 가빠지고 기침이 나며, 肺가 皮毛를 주관하는데, 肺가 손상되면 護衛하는 기능을 잃어버려 땀이 나고, 熱이 元氣를 손상하면 生津도 할 수가 없어서 口渴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人參을 君藥으로 하여 補氣, 즉 補肺하고, 麥門冬을 臣藥으로 하여 清氣, 즉 清肺하며, 五味子를 佐藥으로 하여 斂氣, 즉 斂肺한다고 했다.<sup>28)</sup> 吳謙은 熱이 元氣를 손상시키면 胸中에 쌓여 있는 大氣를 주관하고 있는 肺氣를 補肺·清肺·斂肺시킴으로써 元氣의 손상을 복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9) 吳鞠通的 논설

吳鞠通은 生脈散이 陰을 지켜서 陽氣를 머물게 함을 강조하였다. 吳鞠通은 『溫病條辨』(1798)에서 生脈散에 대해 땀이 많이 나고 맥이 散大하며 가쁘게 숨을 쉬면서 거친 소리를 내며 탈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生脈散으로 치료해야 하며, 生脈散은 酸甘化陰의 治法으로 陰을 지켜서 陽氣를 머물게 하는 방법이고, 陽氣가 머물면 땀은 저절로 멎으며, 人參을 君藥으로 肺中元氣를 補한다고 했다.<sup>29)</sup> 吳鞠通은 흩어진 陽氣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을 강조하기 위해 守陰을 강조하면서도 生脈散이 人參을 君藥으로 해서 肺中元氣를 補함을 강조하였다.

26) 田思勝 主編. 馮兆張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80. “生脈散：生津止渴。治熱傷元氣，氣短倦怠，口乾出汗。……，火氣赫曦則金爲所制，而絕寒水生化的源，故氣短倦怠，出汗者皆手太陰本症也。人參補氣爲君，所謂損其肺者，益其氣也；五味子酸斂，能收肺家耗散之金；麥門冬甘寒，濡肺經燥枯之液。三者皆扶其不勝，使火邪不能爲害也。司天屬火之年，時令燥熱之際尤爲要藥。”

27) 王子接 著, 李飛·武丹丹·黃瓊磁 校注. 絳雪園古方選註.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86. “凡曰散者，留藥於胃，徐行其性也。脈者，主於心，而發原於肺。然脈中之氣，所賴以生者，尤必資藉於腎陰。故『內經』言君火之下，陰精承之也。麥冬清肺經治節之司，五味收先天癸水之原，人參引領麥冬、五味都氣於三焦，歸於肺而朝百脈，猶天之雲霧清，白露降，故曰生脈。”

28) 吳謙 等編. 醫宗金鑑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731. “生脈散：治熱傷元氣，氣短倦怠，口渴出汗。【注】經云：大氣積於胸中，則肺主之。夫暑熱傷肺，肺傷則氣亦傷矣。故氣短倦怠而喘咳也。肺主皮毛，肺傷則失其衛護，故汗出也。熱傷元氣，氣傷則不能生津，故口渴也。是方君人參以補氣，即所以補肺。臣麥冬以清氣，即所以清肺。佐五味以斂氣，即所以斂肺。”

29) 吳鞠通 著, 丁軫炫 譯. 國譯 溫病條辨. 과주. 集文堂. 2005. p.134. “汗多而脈散大，喘喝欲脫者，生脈散主之。……，汗多而脈散大，其爲陽氣發泄太甚，內虛不可留戀可知。生脈散酸甘化陰，守陰所以留陽，陽留，汗自止也。以人參爲君，所以補肺中元氣也。”

### 10) 費伯雄의 논설

費伯雄은 生脈散이 心肺의 陰을 기름을 강조하였다. 費伯雄은 『醫方論』(1865)에서 生脈散에 대해 生脈散이 心肺의 陰을 길러서 氣血로 하여금 몸 전체를 영양하게 하고 五味자로 소모되고 흩어지는 기운을 모으게 해서 땀을 그치게 하고 기침을 안정시키되 허약자가 外感이 없을 경우, 여름에 마땅하다고 하였다.<sup>30)</sup> 費伯雄은 元氣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心肺의 陰을 기름으로써 氣血이 생겨나 온몸을 영양하게 된다고 보았다.

### 11) 張秉成의 논설

張秉成은 生脈散이 正氣를 다스리며 元氣가 충실하면 병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元氣를 강조했다. 張秉成은 『成方便讀』(1904)에서 生脈散에 대해 肺氣가 왕성하면 臟腑의 氣가 모두 왕성해져 精이 저절로 생겨나고 形이 저절로 왕성하여 脈이 저절로 끊어지지 않으며, 暑邪가 있더라도 元氣가 충실하면 병들지 않고, 生脈散이 暑病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正氣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保肺의 한 법이 더위를 물리치며, 여름에 肺虛한 사람이 복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人參은 肺氣를 保하고, 麥門冬은 肺陰을 保하며, 五味子是 소모되고 흩어짐을 수렴한다고 하였다.<sup>31)</sup> 또한 暑邪는 無形의 邪氣이기 때문에 만약 暑邪 속에 濕이 같이 끼어 있지 않다면 邪氣를 머물게 하고 얽매게 할 걱정이 없을 것이고, 결국 또한 大熱이 없을 것이니, 清熱한다고 하여도 清熱할 만한 熱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暑邪

에 濕邪가 더해지느냐 더해지지 않느냐에 따라 病證의 양상이 달라짐을 말하였다. 張秉成은 生脈散이 暑邪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正氣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人參으로 保肺氣하고, 麥門冬으로 保肺陰하며, 五味자로 흩어진 氣를 수렴하여 肺氣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臟腑의 氣가 왕성해져 元氣가 회복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生脈散에 대한 諸家の 논설을 살펴보면, 張元素와 李東垣이 元氣를 강조한 이래로 諸家の 논설에서 대부분 肺를 강조하면서 元氣의 중요성을 말하였음을 알 수 있고, 元氣의 근원을 말하기 위해 腎을 강조하거나 흩어진 陽氣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의 강조를 위해 守陰을 강조한 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주요 本草書 및 醫書에 나타난 生脈散 구성 약물의 藥性

生脈散 구성 약물인 人參·麥門冬·五味자에 대해 『本草綱目』(1590), 『東醫寶鑑』(1610), 『本經疏證』(1832)을 중심으로 藥性を 살펴보면 效能主治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人參의 藥性

『本草綱目』에서 人參에 대해 『神農本草經』을 인용하여 五臟을 補하며 精神을 편안히 하고, 魂魄을 안정되게 하고,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림을 멈추게 하며, 邪氣를 없애고, 눈을 밝게 하며 마음을 열어 지혜를 더하고 오래도록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하였고, 『名醫別錄』을 인용하여 腸胃 속이 찬 것, 心腹이 고동치면서 아픈 것, 가슴과 옆구리가 거스르고 그득한 것, 霍亂으로 吐逆하는 것을 치료하고, 中焦를 조화롭게 하며, 消渴을 멈추고, 血脈을 통하게 하며, 단단한 積을 깨뜨려 사람으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甄權을 인용해서는 五勞七傷과 虛損痰弱을 主治하고, 嘔噦을 멈추게 하며, 五臟六腑를 補하고, 중심을 보전하여 神을 지키며, 가슴 속의 痰을 사라지게 하고, 肺痿 및 癰疾, 찬 기운이 역상하는 것, 傷寒으로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치료하며, 虛하여 꿈을 많

30) 費伯雄 著, 李鐵君 點校. 醫方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7. p.60. “肺主氣, 心主血, 生脈散養心肺之陰, 使氣血得以榮養一身, 而又有酸斂之品以收耗散之氣, 止汗定咳. 虛人無外感者, 暑月宜之.”

31) 李飛 主編. 中醫歷代方論精選.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8. pp.360-363. “夫肺主一身之氣, 爲百脈所朝宗, 肺氣旺則臟腑之氣皆旺, 精自生而形自盛, 脈自不絕矣. 一受暑熱之氣, 金受火刑, 肺氣被灼, 則以上諸證疊出矣. 然暑爲夏月之正邪, 人之元氣充實者, 原可不病, 故邪之所湊, 其氣必虛. 方中但以人參保肺氣, 麥冬保肺陰, 五味以斂其耗散, 不治暑而單治其正, 以暑爲無形之邪, 若暑中無濕, 則不致留戀之患, 畢竟又無大熱, 則清之又無可清, 故保肺一法, 即所以却暑耳. 此又治邪少虛多, 熱傷元氣之一法也, 在夏月肺虛者, 可以服之.”

이 꾸고 정신이 산란한 경우에 추가한다고 하였다. 李時珍 본인은 男女의 모든 虛證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發熱하고 自汗이 나며, 어지럼증과 두통, 反胃로 음식을 토하는 것, 痲痺, 滑瀉久痢, 小便을 자주 보는데 방울방울 나오며, 勞倦內傷, 中風中暑, 痿痺, 吐血嗽血下血, 血淋血崩, 胎前과 產後의 여러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였다.<sup>32)</sup>

『東醫寶鑑·湯液篇』에서 人參에 대해 五臟의 氣가 부족한 것을 主治하고, 精神을 편안하게 하며, 魂魄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마음을 열어 지혜를 더하며, 虛損을 치료하고 霍亂과 嘔噦을 멈추게 하고 肺痿로 膿血을 토하는 것을 치료하고 痰을 없앤다고 했다. 또한 肺火를 動하게 하니, 吐血하거나 오래도록 기침을 하거나 얼굴빛이 검고 氣가 實하며 血이 虛하고 陰이 虛해진 사람에게는 쓰지 말고, 沙參을 대신 쓰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人參은 五臟의 陽을, 沙參은 五臟의 陰을 보한다고 하였다.<sup>33)</sup> 『湯液篇』 외에 『東醫寶鑑·內景篇·氣門』의 少氣證을 치료하는 人參膏의 설명에서 元氣虛乏을 치료한다고 했고<sup>34)</sup>, 『東醫寶鑑·內景篇·三焦門』의 單方에서 人參이 上焦元氣를 補한다고 했다<sup>35)</sup>.

『本經疏證』에서 人參에 대해 ‘陰中之 陽’이며 힘이 세고 본성이 순수하여 安精神·定魂魄하고 補五臟하며, 노란색, 단맛, 서늘한 기, 윤택한 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앙 土인 ‘脾臟의 德’에 부합하여 가장 먼저 脾臟으로 들어가 소화기를 기르고, 다음으로 肺로 들어가서 ‘治節’하며, 다음으로 腎으로 들어가서 ‘作強’하고, 다음으로 肝으로 들어가서 謀慮를 안정시키며, 止驚悸하고 明目하며, 다음으로 心으로 들어가서 神明을 강화하여 開心益智한다고 했다.<sup>36)</sup>

人參에 대해 이상과 같이 세 책에서 藥性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등을 언급했는데, 이는 補元氣와 연관될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腸胃 속이 찬 것과 虛損을 치료하는 것도 補元氣와 연관될 수 있다. 元氣는 우리 몸의 근원적인 氣로 先天의으로 타고난 氣이며, 腎間動氣라고도 하는데, 後天的으로 脾胃의 자양에 의해 끊임없이 보충되며, 三焦가 氣液代謝를 통해 氣液을 宣布하여 元氣를 五臟六腑·十二經絡에 공급한다. 元氣가 충실하면 臟腑經絡 활동이 왕성해서 건강하지만, 타고난 품부가 부족하거나 오랜 질병으로 元氣가 손상되면 臟腑經絡 기능이 저하되고 抗病力이 떨어지게 된다.<sup>37)</sup> 따라서 補五臟은 補元氣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安精神, 定魂魄 등도 補元氣로 해석할 수 있는데, 五臟을 補하는 것은 五

32) 李時珍 編纂, 劉桓如, 劉山永 校注. 新校注本草綱目 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489-496. “【主治】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開心益智. 久服輕身延年(『本經』). 療腸胃中冷, 心腹鼓痛, 胸脅逆滿, 霍亂吐逆, 調中, 止消渴, 通血脈, 破堅積, 令人不忘(『別錄』). 主五勞七傷, 虛損痰弱, 止嘔噦, 補五臟六腑, 保中守神. 消胸中痰, 治肺痿及癆疾, 冷氣逆上, 傷寒不下食, 凡虛而多夢紛紜者加之(甄權). 止煩躁, 變酸水(李珣). 消食開胃, 調中治氣, 殺金石藥毒(大明). 治脾胃陽氣不足, 肺氣虛促, 短氣少氣, 補中緩中, 瀉心, 肺, 脾, 胃中火邪, 止渴生津液(元素). 治男婦一切虛證, 發熱自汗, 眩暈頭痛, 反胃吐食, 痲痺, 滑瀉久痢, 小便頻數淋瀝, 勞倦內傷, 中風中暑, 痿痺, 吐血、嗽血、下血, 血淋、血崩, 胎前、產後諸病(時珍).”

33)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p.1992-1993. “人參 ○ 심. 性微溫, (一云溫), 味甘, (一云微苦). 無毒, 主五臟氣不足, 安精神, 定魂魄, 明目, 開心益智, 療虛損, 止霍亂嘔噦, 治肺痿吐膿, 消痰. ……; ○ 人參動肺火, 凡吐血久嗽面黑氣實血虛陰虛之人, 勿用, 代以沙參可也. [丹心] ○ 人參苦微溫, 補五臟之陽, 沙參苦微寒, 補五臟之陰也. [丹心]”

34)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257. “人參膏治元氣虛乏, 精神短少, 言語不接, 能回元氣於無何有之鄉, 王道也.”

35)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443. “人參補上焦元氣.”

36)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5-21. 鄒澍 지음,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上). 서울. 아티진. 1999. pp.28-35. “人參味甘微寒, 主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益智. 久服輕身延年. ……; ④微溫無毒. ……; 人參不生原濕汗下, 而生山谷, 是其體陰, 乃偏生於樹下, 而不喜風日, 是爲陰中之陽. 在人身五臟之氣, 以轉變化爲陽, 藏而不泄爲陰, 何者. 肺主出氣, 腎主納氣, 心主運量, 肝主疏泄, 此臟氣之變化也. 肺藏魄, 肝藏魂, 心藏神, 腎藏精, 此臟氣之藏守也. 唯人參爲陰中之陽, 其力厚, 其性醇, 故學安精神, 定魂魄, 而補五臟之微驗具矣. 然人自有生已後, 皆賴後天以培先天. 精神魂魄, 稟於先天者也, 轉變化, 得於後天者也, 人參雖力厚氣醇, 終不能越後天直入先天, 且其色黃味甘, 氣涼質潤, 正合中土脾臟之德, 故首入脾而倉廩崇矣, 次入肺而治節行矣, 次入腎而作強遂矣, 次入肝而謀慮定驚悸除目明矣, 次入心而神明固心開益智矣.”

37) 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수 編著. 改訂版東醫生理學. 과주. 集文堂. 2008. pp.140-141.

臟이 간직하고 있는 五神을 補하여 안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湯液篇」외에 다른 편에서 직접적으로 人參이 回元氣하고 補上焦元氣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人參은 또한 五勞七傷·滑瀉久痢·小便頻數淋瀝 등의 下焦의 氣가 弱한 證을 치료하고, 多夢紛紜·煩躁·短氣少氣·自汗·諸般出血證 등의 下焦로 氣가 수렴이 안 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함께 치료하므로 補肺中元氣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麥門冬의 藥性

『本草綱目』에서 麥門冬에 대해 『神農本草經』을 인용하여 心腹에 맺힌 氣와 中焦를 손상하고 飽食으로 손상된 것, 胃의 絡脈이 끊어진 것, 몸이 여위고 수척하며 숨이 짧아지는 것을 치료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늙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다고 했다. 『名醫別錄』을 인용하여 몸이 무겁고 눈이 누렇게 된 것, 명치 부위가 켕기고 그득한 것, 虛勞로 인한 客熱,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嘔吐를 멎게 하고, 痿厥을 치유하며, 陰을 강하게 하며 精을 보익하고, 곡식을 소화시켜 中焦를 조절하며 神을 보호하고, 肺氣를 안정시키며, 五臟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살찌고 건강하게 하며, 안색을 아름답게 하고, 자식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大明을 인용하여 五勞七傷을 치료하고, 魂魄을 안정시키며, 咳嗽을 멈추게 하고, 肺痿로 농혈을 토하는 것과 계절병으로 열나고 미치며 머리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sup>38)</sup>

『東醫寶鑑·湯液篇』에서 麥門冬에 대해 虛勞로 열이 나고 입이 마르며 갈증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肺痿로 고름을 맺는 것을 치료하며, 熱毒으로 몸이

검고 눈이 누른 것을 치료하며, 心을 보하고 肺를 맑게 하며, 정신을 진정시키고 脈氣를 안정케 한다고 했고, 잎은 푸르러 향부자와 비슷하며, 사철 따르지 않고 뿌리는 구슬을 꿰놓은 것 같으며, 그 모양이 보리알 같으므로 이름을 麥門冬이라고 한다고 했다.<sup>39)</sup> 「湯液篇」외에 『東醫寶鑑·雜病篇·虛勞門』의 單方에서 麥門冬이 五勞七傷을 치료하며 五臟을 편안하게 한다고 했다.<sup>40)</sup>

『本經疏證』에서 麥門冬에 대해 心腹結氣·傷中傷飽·胃絡脈絕·羸瘦短氣를 主治하고, 身重目黃·心下支滿·虛勞客熱·口乾燥渴을 主治하며, 止嘔吐·愈痿厥·強陰益精·消穀調中·保神·定肺氣·安五臟한다고 했고, 麥門冬의 質은 부드럽고 질기며, 색이 노란색과 흰색을 겸하며, 脈絡이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서 거의 胃처럼 생겼고, 한 줄기에서 뿌리가 겹겹이 사방으로 퍼져나오며, 12~16 뿌리가 달리는데, 이는 다른 臟腑로 脈이 貫注하는 것과 유사하고, 잎은 한겨울에 더 무성하고 푸르며 윤택하며 빛이 나서 흡속 精氣를 잎과 줄기에 올려보내는 작용이 다른 어떤 초목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면서 쓴맛을 띠고 있으므로 胃에서 心臟까지 미치는 미묘한 이치가 있다. 胃에서 麥門冬을 얻으면 精을 옮기고 상행하여 다른 장부가 안 끊어지게 하고, 肺에서 麥門冬을 얻으면 四臟으로 퍼뜨리고 五腑로 퍼뜨려서 응결한 氣가 저절로 녹고 脈絡이 저절로 이어지며, 음식은 살이 되고, 곡식을 먹고자 하는 정신이 왕성해져 氣가 따라서 몸을 채우게 되는데, 이러한 證들은 神農과 軒轅과 岐伯이 먼저 제창한 것이며, 張仲景과 孫思邈이 후에 화답한 것으로 이미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것인데, 도리어 金元 시대 이후의 학자들이 麥門冬을 보고 ‘補中消運’한다고 하지 않고 ‘淸火

38)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新校注本草綱目 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713-715. 【主治】心腹結氣, 傷中傷飽, 胃絡脈絕, 羸瘦短氣. 久服輕身不老不飢(『本經』). 療身重目黃, 心下支滿, 虛勞客熱, 口乾燥渴, 止嘔吐, 愈痿厥, 強陰益精, 消穀調中保神, 定肺氣, 安五臟, 令人肥健, 美顏色, 有子(『別錄』). 去心熱, 止煩熱, 寒熱體勞, 下痰飲(藏器). 治五勞七傷, 安魂定魄, 止嗽, 治肺痿吐膿, 時疾熱狂頭痛(大明). 治熱毒大水, 面目肢節浮腫, 下水, 主泄精(甄權). 治肺中伏火, 補心氣不足, 主血妄行, 及經水枯, 乳汁不下(元素). 久服輕身明目. 和車前, 地黃丸服, 去溫瘴, 變白, 夜視有光(藏器). 斷谷爲要藥(弘景).”

39)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p.1998-1999. “麥門冬 ○ 겨우사리불귀. 性微寒(一云平), 味甘, 無毒. 主虛勞客熱, 口乾燥渴, 治肺痿吐膿, 療熱毒身黑目黃, 補心清肺, 保神, 定脈氣. ○ 葉青似莎草, 四季不凋, 根作連珠, 形似穢麥類, 故名麥門冬. 二三月九十月採根, 陰乾, 以肥大者爲好, 用之湯潤, 抽去心, 不爾令人煩. [本草]”

40)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1268. “麥門冬治五勞七傷安五臟.”

洩熱'한다고 주장하니, 꿈속을 헤맨 지 거의 500년이 되었다고 했다.<sup>41)</sup>

麥門冬에 대해 이상과 같이 세 책에서 藥性を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虛勞客熱을 치료하고 保神한다고 했는데, 이는 補元氣와 연관될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羸瘦·五勞七傷을 치료하는 것과 五臟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補元氣와 연관될 수 있다. 麥門冬은 또한 五勞七傷·痿厥·泄精 등의 下焦의 氣가 弱한 證을 치료하고, 燥渴·煩熱·肺痿吐膿·時疾熱狂 등의 下焦로 氣가 수렴이 안 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함께 치료하므로 補肺中元氣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五味子の 藥性

『本草綱目』에서 五味子에 대해 『神農本草經』을 인용해서 氣를 더해주고, 咳逆으로 기가 상승하고, 虛勞로 손상되어 몸이 아위고 수척하며, 陰을 강하게 하고, 남자의 精을 더해준다고 했다. 『名醫別錄』을 인용해서는 五臟을 길러주고, 열을 없애며, 陰莖을 커지게 한다고 했다. 甄權을 인용하여 中下焦의 氣를 치료하고, 嘔逆을 그치게 하며, 虛勞를 補하고, 사람의 몸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여 빛이 나게 한다고 했다. 大明을 인용하여 눈을 밝게 하고 水臟을 따뜻하게 하며, 근육을 굳세게 하고 風을 치료하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反胃, 霍亂으로 근에 쥐가 나는 것, 痲痺, 奔豚, 冷氣를 치료하며, 水腫으로 心腹의 氣가 창만한 것을 사라지게 하고, 갈증을 그치게 하

며, 煩熱을 제거하고, 酒毒을 풀어준다고 하였다. 李杲를 인용하여 瀉痢를 치료하고 元氣不足을 補하며 소모되고 흩어진 기운과 눈동자가 散大된 것을 수렴한다고 했고, 王好古를 인용하여 喘咳燥嗽를 치료하고, 水를 굳세게 하며 陽을 진정시킨다고 하였다.<sup>42)</sup>

『東醫寶鑑·湯液篇』에서 五味子에 대해 虛勞로 몹시 여윈 것을 보하며, 눈을 밝게 하고 水臟을 따뜻하게 하여 陰氣를 세게 하며, 남자의 精을 돕고 陰莖을 커지게 하며, 消渴證을 멎게 하고 煩熱을 없애 주며, 酒毒을 풀어주고, 기침이 나면서 숨이 찬 것을 치료한다고 했고, 五味子の 명명에 대해서는 껍질과 살은 달고 시며, 씨는 맵고 쓰면서 모두 짠맛이 있는 등 5가지 맛이 다 나기 때문에 五味子라고 한다고 했다. 또한 孫眞人이 “여름철에 五味子를 늘 먹어 五臟의 기운을 보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五味子가 위로는 肺를 보하고 아래로는 腎을 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43)</sup> 『湯液篇』 외에 『東醫寶鑑·內景篇·精門』의 單方에서 五味子가 남자의 精을 더해준다고 했다.<sup>44)</sup>

『本經疏證』에서 五味子에 대해 益氣하고, 欬逆上氣·勞傷羸瘦를 主治하고, 補不足·強陰·益男子精하며, 養五臟·除熱·生陰中肌한다고 하였고, 五味子是 봄에 싹이 나오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꽃이 피며,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데, 이는 木에서 출발해서, 火에서 왕성해지고, 金에서 완성하는 뜻으로, 金에서

41)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41~43. 鄒澍 지음.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上). 서울. 아티전. 1999. pp.69-72. “麥門冬味甘平, 主心腹結氣, 傷中傷飽, 胃絡脈絕, 羸瘦短氣, 久服輕身不老不飢. ④微寒無毒, 主身重目黃, 心下支滿, 虛勞客熱, 口乾燥渴, 止嘔吐, 愈痿厥, 強陰益精, 消穀調中, 保神, 定肺氣, 安五臟, 令人肥健, 美顏色有子. ……; 麥門冬質柔而韌, 色兼黃白, 脈絡貫心, 恰合胃之形象. 其一本間根株纍纍, 四旁橫出, 自十二至十六之多, 則有似夫與他臟附脈絡貫注之義. 其葉隆冬愈茂, 青蔥潤澤. 鑑之有光, 則其吸土中精氣上滋莖葉, 絕勝他物可知. 且其味甘, 甘中帶苦, 又合從胃至心之妙, 是以胃得之而能輸精上行, 自不與他臟斷絕, 肺得之而能敷布四臟, 灑陳五腑, 結氣自爾消路, 脈絡自爾聯續, 飲食得爲肌膚, 穀神旺而氣隨之充也, 是證也, 農皇軒岐唱之於前, 仲景思邈和之於後, 既已彰彰顯著矣. 乃金元以來, 凡遇此者, 不曰補中消運, 則曰清火泄熱, 夢夢者幾五百年.”

42) 李時珍 編纂, 劉巨如, 劉山永 校注. 新校注本草綱目 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pp.846-848. “【主治】益氣, 咳逆上氣, 勞傷羸瘦, 補不足, 強陰, 益男子精(『本經』). 養五臟, 除熱, 生陰中肌(『別錄』). 治中下氣, 止嘔逆, 補虛勞, 令人體悅澤(甄權). 明目, 暖水臟, 壯筋骨, 治風消食, 反胃霍亂轉筋痲痺奔豚冷氣, 消水腫心腹氣脹, 止渴, 除煩熱, 解酒毒(大明). 生津止渴, 治瀉痢, 補元氣不足, 收耗散之氣, 瞳子散大(李杲). 治喘咳燥嗽, 壯水鎮陽(好古).”

43)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p.2015-2016. “五味子 ○ 오미자. 性溫, 味酸, (一云微苦), 無毒. 補虛勞羸瘦, 明目, 暖水臟, 強陰, 益男子精, 生陰中肌, 止消渴, 除煩熱, 解酒毒, 治咳嗽上氣. …… ○ 皮肉甘酸, 核中辛苦, 都有鹹味. 此則五味具也, 故名爲五味子. 入藥生暴, 不去子. [本草] ○ 孫眞人云, 夏月常服五味子, 以補五臟之氣, 在上則滋源, 在下則補腎, 故入手太陰·足少陰也. [湯液]”

44)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p.242. “五味子益男子精.”

氣가 완성되기 때문에 신맛이 제일 많은데, 이는 肺가 肝에서 교합하는 것이다[肺媾於肝]. 肺가 肝에서 교합하면, 肝은 肺가 교합하는 힘으로 脾에 도달하고, 脾는 肺와 합하여 腎으로 돌아가니, 足三陰 氣를 갖추고 수렴 하강하는 뜻으로서 陰도 따라오고, 氣가 맛에 의존하여 腎으로 도달하는데, 腎은 氣를 받아들이는 곳이므로 『本經』에서 益氣를 먼저 쓰고 欬逆上氣를 바로 붙여 썼다고 했다. 이어서 腎은 오장육부 精을 받아서 저장하며, 肺는 오장육부 氣를 통솔하여 승강하는데, 만약 六淫七情으로 氣를 소모하면, 肺가 하강하여 腎으로 돌아가지 못하므로 元氣를 소모하여 허약해지고, 肺가 하강하여 腎으로 돌아가야 眞氣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건강해지는데, 五味子는 모든 氣를 腎으로 거두어 들이며, 腎으로 들어가는 것은 五臟六腑의 精이라고 했다.”<sup>45)</sup>

五味子에 대해 이상과 같이 세 책에서 藥性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虛勞羸瘦를 補하고 五臟을 기른다고 했는데, 이는 補元氣와 연관될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補虛勞와 暖水臟 등도 補元氣와 연관될 수 있다. 五味子는 또한 勞傷羸瘦·虛勞 등의 下焦의 氣가 弱한 證을 치료하고, 咳逆上氣·嘔逆·煩熱·腫子散大 등의 下焦로 氣가 수렴이 안 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함께 치료하므로 補肺中元氣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張元素와 李東垣의 生脈散 논설에 대한 분석

45)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73-78. 鄒澍 지음.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上). 서울. 아티전. 1999. pp.118-125. “五味子味酸溫, 主益氣, 欬逆上氣, 勞傷羸瘦, 補不足, 強陰 益男子精. ④無毒, 主養五臟, 除熱, 生陰中肌. ……; 以生苗於春, 開花於春夏之交, 結實於秋, 是發於木, 盛於火, 告成於金也. 氣告成於金, 酸味乃勝, 是肺媾於肝也. 肺媾於肝, 肝因媾肺而至脾, 脾仍合肺以歸腎, 是具足三陰之氣收之以降, 陰亦隨之矣, 氣依味至腎, 腎非納氣者歟. 此本經主治所以首益氣, 卽繼以欬逆上氣也. 第所云勞傷補不足, 強陰益精者何. 蓋腎者主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肺亦統五臟六腑之氣而主之, 腎氣原上際於肺, 肺氣亦下歸於腎, 蓋以一氣自爲升降者也. 若六淫七情有以耗散之, 至肺失其降而不歸, 不歸則元氣遂耗散以日虛, 歸腎則眞氣還其本源以日益. 五味子能收諸氣入腎, 入腎卽爲五臟六腑之精, 腎受而藏之矣.”

#### 1) 張元素의 ‘肺中伏火’ 및 ‘補肺中元氣不足’ 분석

張元素는 麥門冬의 主治를 설명할 때 ‘肺中伏火’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生脈散의 효능을 ‘補肺中元氣不足’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肺中伏火’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伏火’라는 용어는 『醫學啓源』에서 麥門冬의 主治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 潤腸丸을 설명할 때도 ‘脾胃中伏火’라는 용어가 나왔고<sup>46)</sup>, 張元素의 학술을 계승하고 있는 李東垣의 『脾胃論』에서도 潤腸丸 설명에서 ‘脾胃中伏火’ 부분을 ‘飲食勞倦’<sup>47)</sup>이라고 한 것을 볼 때, 伏火가 虛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脾胃論·脾胃虛則九竅不通論』에서 飲食勞倦傷으로 陰火가 土位를 올라타 清氣가 생겨나지 않고 陽道가 행해지지 않음을 ‘陰血伏火’<sup>48)</sup>라고 하였고, 『脾胃論』의 처방 중 黃芪人參湯의 加減例에서 大便이 澀滯한 경우를 설명할 때 ‘血中伏火’<sup>49)</sup>라고 했는데, 伏火는 慢性的인 경과를 드러내고 病程에 사로잡혀 쉽게 벗어나지 못하며 때로는 가볍다가 때로는 위중해지면서 반복해서 발작하는 것이다.<sup>50)</sup> 따라서 肺中伏火는 外感에 의하지 않고도 久咳, 久嗽 등과 같이 肺에 만성적인 질병이 낫지 않고 지속되면서 實火가 아닌 虛火의 양상으로 질병이 발현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張元素는 生脈散의 효능을 ‘補肺中元氣不足’이라고 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醫學啓源』에서 張元素가 元氣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醫學啓源』에서 三焦가 三元之

46)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4. “潤腸丸：治脾胃中伏火, 大便秘澀, 或乾燥不通, 全不思食, 此乃風結秘, 血結秘, 皆令閉塞也. 風以潤之, 血以和之, 和血疏風, 自通利矣.”

47)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714. “治飲食勞倦, 大便秘澀, 或乾燥閉塞不通, 全不思食, 及風結, 血秘, 皆能閉塞也. 潤燥和血疏風, 自然通利也.”

48)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697. “飲食勞役所傷, 自汗小便數, 陰火乘土位, 清氣不生, 陽道不行, 乃陰血伏火.”

49)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687-688. “如大便澀滯, 隔一二日不見者, 致食少, 食不下, 血少, 血中伏火而不得潤也, 加當歸身, 生地黃, 麻子仁泥以上各五分, 桃仁三枚.”

50) 宋立富. 伏火論. 中華中醫藥雜誌. 2010. 25(2). pp.192-194.

氣이며, 三焦가 통하면 上下內外左右의 氣가 모두 통하여 온몸을 조화롭게 하고 영양하며 펼쳐 통하게 하는 데에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sup>51)</sup>고 하면서 三焦를 통한 元氣의 선포를 중요시하였다.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式』에서는 三焦가 相火의 쓰임이 되어 命門의 元氣를 분포시킨다<sup>52)</sup>라고도 했다. 또한 『醫學啓源』에서 防風을 설명할 때 “誤服瀉人上焦元氣.”<sup>53)</sup>라고 하였고, 人參을 설명할 때 “若補下焦元氣, 瀉腎中之火邪, 茯苓爲之使.”<sup>54)</sup>라고 하였으며, 甘草를 설명할 때 “能補三焦元氣”<sup>55)</sup>라고 하였다. 이는 元氣가 몸 전체에 있는 근원적인 氣이므로 上焦에 있던 下焦에 있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부위를 편의상 구분한 것일 뿐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張元素가 生脈散의 효능을 ‘補肺中元氣不足’이라고 한 것은 肺氣이면서 동시에 三焦의 元氣와 연계된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式』에서는 肺가 우리 몸의 元氣를 總攝한다<sup>56)</sup>고 하는 등 肺와 元氣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말했다. 또한 『醫學啓源』에서는 肺에 대해 氣를 생기게 하는 근원으로 相傳라고 부르며, 五臟의 華蓋이다<sup>57)</sup>라고 했는데, 生氣之源의 氣가 곧 元氣라고 할 수는 없으나, 肺가 꽃처럼 위로 올라와 피어나오는 기운을 밀로 肅降시키면서 氣가 생긴다고 한 것으로, 肺는 氣를 수렴시키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肺는 相傳之官으로써 治節을 제대로 행하고 肅降시켜서 氣를 수렴시킬 뿐만 아니라, 肺를 통해 氣가 수렴되면 정제된 液(=水精)도 수렴되고, 수렴된 氣와 液(=水精)을 다시 三焦가 氣液代謝를 통해 온몸에 元氣를 선포시켜 肺를 통해 수렴된 氣와 液(=水精)이 많으면 많을수록 元氣도 三焦를 통해 잘 퍼져나가고, 三焦가 잘 통해져서 元氣가 보충될 수 있다.

## 2) 李東垣의 ‘補天真元氣’ 및 ‘夏食寒’ 분석

李東垣의 生脈散 논설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여름에 補해야 하는 것은 天真元氣이고, 熱火가 아니며, 여름에 찬 것을 먹는 것이 이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補天真元氣’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李東垣의 저서에서 元氣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脾胃論·脾胃虛則九竅不通論』에서 “眞氣又名元氣, ……; 又天氣、人氣、地氣, 乃三焦之氣. 分而言之則異, 其實一也, 不當作異名異論而觀之.”<sup>58)</sup>라고 하여 眞氣가 元氣이며, 또한 天氣, 人氣, 地氣는 三焦之氣로, 나누어 말하면 다르지만, 그 실질은 하나이니, 마땅히 (眞氣와 元氣의)이름이 다르다고 논의를 달리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眞氣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참된 기운이지만, 李東垣은 眞氣를 또한 元氣라고 이름한다면서 眞氣와 元氣를 동일시하였다. 또한 『脾胃論·安養心神調治脾胃論』에서喜怒哀樂 등의 감정이 元氣를 손상시키며, 陰火가 치성함은 마음에 응체가 생겨 七情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心脈은 神이 깃들어 있고, 마음이 안녕하지 못하여 火가 되면 火는 七神의 賊이므로, 陰火가 크게 왕성하여 經營하는 氣가 神을 기를 수 없으면 脈이 병든다. 神이 길러지는 것이 없고, 津液이 운행되지 않으면 血脈을 생기게 할 수가 없고, 心의 神은 眞氣의 別名이라고 하여<sup>59)</sup> 元氣, 眞

51)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4-22. “三焦者, 人之三元之氣也, 號曰中清之腑, 總領五臟六腑, 榮衛經絡, 內外左右上下之氣也. 三焦通, 則上下內外左右皆通也. 其於灌體周身, 和內調外, 榮養左右, 宣通上下, 莫大於此也.”

52)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5. “三焦爲相火之用, 分布命門元氣, 主升降出入, 遊行天地之間, 總領五臟六腑營衛經絡內外上下左右之氣.”

53)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1.

54)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4.

55)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4-55.

56)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7. “肺藏魄, 屬金, 總攝一身元氣, 主聞, 主哭, 主皮毛.”

57)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7. “經曰: 肺者, 魄之舍也, 生氣之源, 號爲相傳, 乃五臟之華蓋也.”

58)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697-698.

59)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694-695. “「靈蘭秘典論」云, 心者, 君主之宮, 神明出焉. 凡怒、忿、悲、思、恐、懼, 皆損元氣. 夫陰火之熾盛, 由心生癡滯, 七情不安故也. 心脈者, 神之舍, 心君不寧, 化而爲火, 火者, 七神之賊也. 故曰陰火太盛, 經營之氣, 不能頤養於神, 乃脈病也. 神無所養, 津

氣, 神을 같은 층차로 보았다. 張元素가 『醫學啓源·藥類法象』의 五味子 설명에서 生脈散의 약물 구성에 黃芪와 黃蘗을 더하면 精神과 元氣가 모두 충족하게 되어 筋力이 용솨음쳐 나온다<sup>60</sup>)고 설명한 것을 李東垣이 『脾胃論』에서 元氣를 神氣로 바꾸어 설명한 것<sup>61</sup>)도 元氣와 神氣를 같은 층차에서 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神氣라는 것은 腎에 갈무리되어 있던 精이 氣化되어 나온 精氣나 元氣가 충실할 때 거기에 神이 붙어서 활동함을 神氣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sup>62</sup>), 李東垣은 張元素가 元氣라고 서술한 것을 神氣라고 바꾸어 서술함으로써 元氣를 神氣와 같은 층차에서 논하였다. 五臟은 五神을 모두 간직하고 있는데<sup>63</sup>), 『脾胃論』 淸神益氣湯의 설명에서 靑皮·橘皮·生甘草·白芍藥·白朮·人參이 모두 근본을 지키고 經絡으로 달려가지 않으며, 經絡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은 經絡 중의 邪氣를 자양하지 않음이며, 지킨다[守]는 것은 능히 五臟의 元氣를 補할 수 있다<sup>64</sup>)고도 하였다. 李東垣이 元氣, 眞氣, 神(神氣)을 같은 층차로 보았고, 인체의 根本인 五臟을 지키는 五臟에 간직된 五神을 지키는 것이기에 元氣를 補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五臟 전체를 補한다고 해서 다 元氣라고 할 수는 없고, 五臟 전체를 補할 때, 下焦

의 元氣가 올라와서 五臟을 補했을 때 元氣의 작용과 관련이 되며, 元氣, 眞氣, 神(神氣)을 같은 층차에서 논하고 있으므로, 安精神, 定魂魄 등 神氣와 관련된 내용도 元氣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夏食寒’은 『素問·四氣調神大論』의 “春夏養陽, 秋冬養陰.”<sup>65</sup>)에 대해 王冰이 “春食涼, 夏食寒, 以養於陽. 秋食溫, 冬食熱, 以養於陰.”<sup>66</sup>)이라고 注釋을 붙인 것에서 유래한다. 봄에는 따뜻하니까 서늘한 음식을 먹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차가운 음식을 먹어서 溫熱한 기운을 상쇄시켜 陰에 뿌리를 둔 陽氣를 보전해 나간다는 뜻이 있다. 봄과 여름에 陽을 잘 기르고, 가을과 겨울에 陰을 잘 기르면 뿌리를 잘 따르게 되어 만물과 더불어 生長의 門에서 浮沈할 수 있지만, 만약 반대로 행동하면 根本을 치게 되고, 眞氣를 무너뜨리게 된다<sup>67</sup>)는 말이 뒤에 이어지는데, 李東垣은 眞氣를 元氣라고 했으므로 ‘夏食寒’은 天真元氣를 기르는 것과 연관된다. 또한 李東垣은 『脾胃論·陰陽壽夭論』에서 陰精이 받들면 장수하고, 陽精이 하강하면 일찍 죽는데, 陰精이 받드는 것은 봄과 여름의 生長之氣이고, 陽精이 하강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의 收藏之氣이며, 밖에 뿌리를 둔 것은 氣立으로 氣가 멈추면 生化도 끊어지고, 안에 뿌리를 둔 것은 神機로 神이 없으면 氣機도 쏠리고 하면서 脾가 五臟의 氣를 주관하고, 腎이 五臟의 精을 주관하여 위로 하늘을 받들고, 生化를 주관하니, 生長의 氣가 胃로부터 나오며, 기거동작과 음식이 각각 자기의 자리를 얻어서 받드시 맑고 받드시 깨끗하여 胃의 元氣를 손상시키지 않게 해야 한다<sup>68</sup>)고 했다. 飲食에 있어서 ‘得其所’는 봄에 서늘

液不行, 不能生血脈也. 心之神, 眞氣之別名也. 得血則生, 血生則脈旺, 脈者神之舍. 若心生凝滯, 七神離形, 而脈中唯有火矣. 善治斯疾者, 惟在調和脾胃, 使心無凝滯, 或生歡忻, 或逢喜事, 或天氣暄和, 居溫和之處, 或食滋味, 或眼前見欲受事, 則慧然如無病矣. 蓋胃中元氣得舒伸故也.”

60)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6-57. “五味子 ……; 與黃芪, 人參, 麥門冬, 少加黃蘗, 鍾煎湯服之, 使人精神, 元氣兩足, 筋力涌出.”

61)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1018-1019. ““五味子, ……; 遇夏月季夏之間, 人困乏無力, 乃無氣以動也, 以黃芪·人參·麥冬, 少加黃柏到煎湯服, 使人精神, 神氣兩足, 筋力涌出.”

62) 白裕相, 尹銀柳, 『黃帝內經』의 精, 神과 陰陽變化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1). pp.47-55.

6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p.92-94. “五藏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藏所藏.”

64)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702. “靑皮, 橘皮, 生甘草, 白芍藥, 白朮, 人參. 此藥皆能守本而不走經. 不走經者, 不滋經絡中邪. 守者, 能補臟之元氣.”

6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p.14-15.

66) 王冰 註解, 林億 校注, 孫國中·方向紅 點校.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pp.18-19. “陽氣根于陰, 陰氣根于陽, 無陰則陽無以生, 無陽則陰無以化, 全陰則陽氣不極, 全陽則陰氣不窮. 春食涼, 夏食寒, 以養于陽, 秋食溫, 冬食熱, 以養于陰.”

6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p.14-15.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 故與萬物浮沈於生長之門. 逆其根, 則伐其本, 壞其眞矣.”

68)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700. “「五常政大論」云,

한 것을 먹고, 여름에 찬 것을 먹어서 陰에 뿌리를 둔 陽氣를 기르는 것이며, 이는 元氣를 기르는 것과도 밀접하다. 앞의 李東垣 논설에서 ‘補水之源’과 ‘瀉火’ 또는 ‘瀉熱’이라고 한 것도 ‘夏食寒’과 연관된다. ‘補水之源’의 ‘水之源’은 결과적으로 肺를 가리키는데, 『素問·經脈別論』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素問·經脈別論』에서 “飲入於胃, 游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 合於四時五藏陰陽, 揆道以爲常也.”<sup>69)</sup>라고 했는데, 飲食 중 飲이 胃에 들어가면 中焦脾를 거쳐서 上焦인 肺까지 귀속되고, 다시 肺의 通調水道 과정을 통해 노폐물을 폐기함으로써 飲의 순도를 높이게 된다. 水精은 순도가 높은 것으로 液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순하게 心肺를 통해 피부의 땀으로 나오는 津과 구별된다. 通調水道는 肺가 肅降 작용을 통하여 물길을 조절하여 띄우는 것으로서, 肺가 陰氣를 행하면 水精이 맺혀서 그것이 모여 아래로 수월하게 보내지는 것이고, 毛脈合精과 마찬가지로 飲入於胃한 경우에도 肺의 肅降 작용을 통해 水精이 생성되는데, 우리가 마신 물이 脾肺의 작용을 거쳐야 몸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水精, 즉 津液으로 변화되고, 肺의 肅降 기능을 받지 못하면 痰飲이 된다.<sup>70)</sup> 따라서 生脈散 복1용을 통해 ‘夏食寒’하여 水之源인 肺를 補하여 氣를 수렴하고, 정체된 液도 수렴하여 三焦가 氣液代謝를 통해 온몸에 元氣를 잘 선포시키고, 三焦가 잘 통해져서 元氣가 보충될 수 있다.

또한 李東垣의 生脈散 논설 중 瀉火한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첫째, 人參의 甘味는 補元氣하고 瀉熱火한다고 했고, 둘째 五味子의 酸味로 瀉火하고 庚大腸과 肺金을 補한다고 했으며, 셋째 心火가 항성하면 甘味로써 瀉한다고 했다.<sup>71)</sup> 이는 『素問·藏氣法時論』의 苦欲補瀉로써 설명해볼 수 있다. 心의 苦欲補瀉에 대해 『素問·藏氣法時論』에서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 心欲軟, 急食鹹而軟之, 用鹹補之, 甘瀉之.”<sup>72)</sup>라고 하여 心은 늘어지는 것을 피로워하는데, 급히 酸味를 먹어서 이roso 수렴한다. 心이 연해지려고 하면 급히 鹹味를 먹어서 연하게 하니, 鹹味를 써서 補하고, 甘味로써 瀉한다고 했다. 緩과 軟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軟은 부드럽고 유연한 것으로 뻣뻣하지도 않고 늘어져 처지지도 않아서 氣의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緩은 늘어진 것으로 기운이 처져있는 상태인데, 늘어진 것이 심해지면 움직임이 둔해져서 오히려 굳어서 딱딱해질 수도 있다. 鹹味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sup>73)</sup>이라고 하여 辛味와 甘味는 發散하여 陽이 되고, 酸味와 苦味는 涌泄하여 陰이 되지만, 鹹味는 陰이나 陽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陰的이면서 陽的인데, 鹹味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鹹味는 원래 水의 本味로서 氣를 갈무리하면서 내부에 陽氣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心火의 陽氣가 지나치게 흩어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동시에 내부의 氣를 보충해주는 작용을 한다.<sup>74)75)</sup> 甘味는 기운을 늘

陰精所奉其人壽, 陽精所降其人夭. 夫陰精所奉者, 上奉於陽, 謂春夏生長之氣也. 陽精所降者, 下降於陰, 謂秋冬收藏之氣也. 且如地之伏陰, 其精遇春而變動, 升騰於上, 即曰生發之氣, 升極而浮, 即曰蕃秀之氣, 此六氣右遷於天, 乃天之清陽也. 陽主生, 故壽. 天之元陽, 其精遇秋而退, 降降於下, 乃爲收斂殞殺之氣, 降極而沉, 是爲閉藏之氣, 此五運左遷入地, 乃地之濁陰也. 陰主殺, 故夭. 根於外者, 名曰氣立, 氣止則化絕. 根於內者, 名曰神機, 神去則機息. 皆不升而降也. 地氣者, 人之脾胃也. 脾主五臟之氣, 腎主五臟之精, 皆上奉於天, 二者俱主生化, 以奉浮升, 是知春生夏長, 皆從胃中出也. 故動止飲食, 各得其所, 必清必淨, 不令損胃之元氣, 下乘腎肝, 及行秋冬殞殺之令, 則亦合於天數耳.”

6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86.  
70) 朴贊國 譯注. 改訂版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p.434-438.

71)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687-692. “聖人立法, 夏月宜補者, 補天元之眞氣, 非補熱火也. 今人夏食寒是也. 爲熱傷元氣, 以人參, 麥門冬, 五味子, 生脈. 脈者, 元氣也. 人參之甘, 補元氣, 瀉熱火也. 麥門冬之苦寒, 補水之源, 而清肅燥金也. 五味子之酸, 以瀉火, 補庚大腸與肺金也.”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701-706. “火熾之極, 金伏之際, 而寒水絕體, 於此時也. 故急救之以生脈散, 除其濕熱, 以惡其太甚. 肺欲收, 心苦緩, 皆酸以收之. 心火盛則甘以瀉之, 故人參之甘, 佐以五味子之酸.”  
7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p.88-89.  
7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p.23-28.  
74)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懸吐註

어뜨려 心에 대하여 瀉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醫學啓源·用藥備旨·臟氣法時補瀉法』에서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五味子. …… , 心欲軟, 急食鹹以軟之, 芒硝. 以鹹補之, 澤瀉. 以甘瀉之, 黃芪, 甘草, 人參.”<sup>76)</sup>이라고 하여, 甘味로써 瀉하는 예시로 人參, 黃芪, 甘草를 들고 있다. 心火가 항성할 때 氣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人參의 甘味로 瀉하면서도 五味子の 酸味로 泄표로부터 氣를 수렴해서 人參을 보좌하도록 했다.

#### 4. 張元素와 李東垣이 설명한 生脈散 구성 약물의 藥性

앞에서 『本草綱目』, 『東醫寶鑑』, 『本經疏證』을 중심으로 生脈散을 구성하고 있는 人參, 麥門冬, 五味子の 藥性を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張元素와 李東垣의 세 약물에 대한 藥性を 그들이 저술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人參의 藥性

人參에 대해 張元素는 『醫學啓源』에서, 李東垣은 『藥類法象』에서 甘溫하고 脾肺陽氣不足 및 肺氣喘促·短氣少氣를 다스리며, 補中緩中하고 肺脾胃中の 火邪를 瀉하여 短氣를 잘 치료하며, 升麻를 인경약으로 써서 상승하는 기운을 補하고, 茯苓을 使藥으로 하여 下焦의 元氣를 補하고 腎中の 火邪를 瀉한다고 하여<sup>77)78)</sup> 李東垣이 張元素의 약물 관점을 잘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張元素는 또한 『醫學啓源』에서 『主治秘要』를 인용하여 人參은 補元氣·止渴·生津液의 쓰임이 있다고도 하였고<sup>79)</sup>, 『潔古老人珍珠囊』에서는 人參에 대해 甘苦하며 養血, 補胃氣, 瀉心火한다고 했다.<sup>80)</sup> 李東垣은 『用藥心法』에서 人參에 대해 氣不足을 補하고 瀉肺火하며, 甘溫하여 補陽利氣하고 脈不足한 경우는 亡血이니, 人參으로 補하고, 益脾에는 乾薑과 함께 써서 補氣한다고 했다. 李東垣이 편집한 『珍珠囊藥性賦』에서는 人參에 대해 甘溫하고 止渴生津液·和中益元氣한다고 했는데<sup>81)</sup>, 이는 張元素의 『主治秘要』 내용과 유사하다. 張元素의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式』은 臟腑별로 標本寒熱虛實에 따른 用藥法の 기본 원칙을 기술했는데, 肺의 경우 “氣虛補之. 正氣虛, 故用補, 下分三法”<sup>82)</sup>이라고 하면서 補母, 潤燥, 斂肺를 제시했고, 人參은 이중 補母한다<sup>83)</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人參에 대해 張元素는 ‘補元氣’라고 하고, 李東垣은 ‘益元氣’라고 하여 元氣의 補益을 공통적으로 말했음을 알 수 있다. 人參이 元氣를 補한다는 것은 補脾함으로써 土生金하여 補肺하는 내용도 있지만, 生津止渴하여 津液이 相成함으로써 神이 自生하여 元氣가 회복됨을 말하기도 한다. 人參은 또한 元氣不足 등의 下焦의 氣가 弱한 證을 치료하고, 氣促短氣少氣 등의 下焦로 氣가 수렴이 안 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함께 치료하므로 補肺中元氣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p.555-556. “心火太過則爲躁越, 故急宜食鹹以戾之, 蓋鹹從水化, 能相濟也.”

75) 白裕相. 『內經』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10-14.

76)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9.

77)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4-56. “人參：氣溫味甘 治脾肺陽氣不足 及肺氣喘促 短氣少氣 補中緩中 瀉肺脾胃中火邪 善治短氣 非升麻爲引用 不能補上升之氣 升麻一分 人參三分 可爲相得也. 若補下焦元氣 瀉腎中之火邪 茯苓爲之使.”

78)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1016-1017. “人參, 氣溫味甘, 治脾肺陽氣不足, 及能補肺, 氣促·短氣·少氣. 補而緩中, 瀉肺脾胃中火邪, 善治短氣. 非升麻爲引用, 不能補上升之氣. 升麻一分, 人參三分, 可爲相得也. 若補下焦元氣, 瀉腎中火邪, 茯苓爲之使.”

79)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4-56. “人參：『主治秘要』云 性溫味甘 氣味俱薄 浮而升 陽也. 其用有三 補元氣一也. 止渴二也. 生津液三也. 肺實忌之. 又云 甘苦 陽中之陽也 補胃嗽喘勿用 短氣用之. 去蘆.”

80)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7. “人參：甘苦, 陽中微陰. 養血, 補胃氣, 瀉心火, 喘嗽勿用之, 短氣用之. 與藜蘆相反.”

81)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1054. “人參：味甘, 氣溫, 無毒. 升也, 陽也. 其用有三, 止渴生津液, 和中益元氣, 肺寒則可服, 肺熱還傷肺.”

82)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7.

83)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7. “補母：土爲金母, 補脾胃, 正以益肺氣. 甘草, 人參, 升麻, 黃芪, 山藥.”

## 2) 麥門冬의 藥性

麥門冬에 대해 張元素의 『醫學啓源』과 李東垣의 『藥類法象』에서 肺中伏火로 脈氣欲絶함을 치료한다고 하여 效能主治를 똑같이 기술했다.<sup>84)85)</sup> 또한 張元素의 『潔古老人珍珠囊』에서 麥門冬이 肺中伏火를 치료하며, 生脈保神·強陰益精한다고 했고<sup>86)</sup>, 李東垣은 『用藥心法』에서 心氣不足을 補하고 血의 妄行을 다스리며, 心不足을 補한다고 하여 『藥類法象』에서 언급한 肺中伏火 외에 補心氣不足을 말했으며<sup>87)</sup>, 『珍珠囊藥性賦』에서는 甘平寒하고 하강하며, 陽중의 陰으로 胸膈 중에 숨어 었드려 있는 火를 물러나게 하고, 肺中の 부족한 金을 생겨나게 하며, 煩燥를 그치게 하고 陰이 그 길러짐을 얻으며, 虛勞를 補하여 熱이 능히 침입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여<sup>88)</sup> 張元素의 麥門冬으로 肺中伏火를 치료한다는 관점을 계승하면서도 보충한 측면이 있다. 또한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式』에서 肺氣虛한 경우 補母, 潤燥, 斂肺의 세 가지 法을 쓰는데, 麥門冬은 潤燥한다고 했다.<sup>89)</sup> 人參이 脾胃를 補해서 肺氣를 補하는 것이라면 麥門冬은 肺陰을 補하며, 潤燥의 방법은 瀉火를 벗어나지 않는데, 實火를 瀉한다면 苦寒한 약을 쓰겠지만, 虛火를 瀉한다면 甘寒한 약을 써야 한다고 했다. 麥門冬은 甘寒한 성질을 지녀 潤燥함으로써 肺中伏火를 치료한다고 할 수 있고, 張元素가 生脈

保神이라고 하였고, 李東垣이 補心不足이라고 한 것은 神(神氣)을 보존하는 것이며, 앞에서 元氣, 眞氣, 神(神氣)이 같은 층차로 설명된다고 한 것을 보았을 때 麥門冬의 保神·補心不足은 補元氣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麥門冬은 또한 脈氣欲絶 등의 下焦의 氣가 弱한 證을 치료하고, 肺中伏火·血妄行·膈中隱伏之火·煩燥 등의 下焦로 氣가 수렴이 안 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함께 치료하므로 補肺中元氣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五味子の 藥性

五味子에 대해 張元素의 『醫學啓源』과 李東垣의 『藥類法象』에서 거의 똑같이 酸溫하고 五臟의 氣를 크게 補한다고 하면서 孫眞人이 5월에 항상 五味子를 복용하여 五臟의 氣를 補했다고 하였고, 여름 장마철에 무력하여 움직일 기운이 없으면 五味子에 黃芪·人參·麥門冬과 조금의 黃蘗을 넣어 精神과 元氣(神氣)를 충족하게 하여 근력이 용솟음치게 한다고 하여<sup>90)91)</sup> 李東垣이 張元素의 관점을 잘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潔古老人珍珠囊』에서 張元素는 五味子가 陰中微陽하여 治嗽하고 補眞氣한다고 했고<sup>92)</sup>, 李東垣은 五味子에 대해 『用藥心法』에서 肺氣를 수렴하여 氣不足을 補하고, 상승하며, 酸味로써 거스르는 기운을 수렴한다고 했고<sup>93)</sup>, 『珍珠囊藥性賦』에서 酸溫하고, 하강하며, 腎經의 부족한 水를 자양하고, 肺氣의 耗散된 金氣를 수렴하며, 煩熱을 없애고 生津止渴하며, 虛勞를 補하고 益氣強陰한

84)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6-57. “麥門冬：氣寒，味微苦甘，治肺中伏火，脈氣欲絶.”

85)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1018-1019. “麥門冬：氣寒，味微苦，治肺中伏火，脈氣欲絶.”

86)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9. “麥門冬：甘，陽中微陰. 治肺中伏火，生脈保神，強陰益精.”

87)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1034-1037. “麥門冬：補心氣不足，及治血妄行，補心不足.”

88)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1056. “麥門冬：味甘，平，性寒，無毒. 降也. 陽中陰也. 其用有四：退膈中隱伏之火，生肺中不足之金. 止煩燥陰得其養，補虛勞熱不能侵.”

89)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7. “潤燥：補母是益肺中之氣，潤燥是補肺中之陰，金爲火刑則燥，潤燥不外瀉火，瀉實火則用苦寒，瀉虛火則用甘寒. 蛤蚧，阿膠，麥門冬，貝母，百合，天花粉，天門冬.”

90)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56-57. “五味子：氣溫味酸，大益五臟氣. 孫眞人曰，五月常服五味子，以補五臟之氣. 遇夏月季夏之間，令人困乏無力，無氣以動，與黃芪，人參，麥門冬，少加黃蘗，銜煎湯服之，使人精神，元氣兩足，筋力涌出.”

91)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1018-1019. “五味子：氣溫味酸，大益五臟之氣. 孫眞人云，五月常服五味子，以補五臟氣. 遇夏月季夏之間，人困乏無力，乃無氣以動也，以黃芪·人參·麥冬，少加黃柏到，煎湯服，使人精神，神氣兩足，筋力涌出.”

92)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8. “五味子：酸，陰中微陽，治嗽，補眞氣.”

93)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p.1034-1037. “五味子：收肺氣，補氣不足，升也. 酸以收逆氣.”

다고 했다.<sup>94)</sup> 한편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式』에서 肺氣虛한 경우 補母, 潤燥, 斂肺의 세 가지 法을 쓰는데, 五味子는 斂肺한다고 했다. 五味子에 대해 張元素가 직접적으로 眞氣를 補한다고 하였고, 둘 다 生脈散 藥물 구성에 黃芪와 黃蘗을 추가하면 精神과 元氣(神氣)를 충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五味子는 補元氣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五味子는 또한 因乏無力·無氣以動 등의 下焦의 氣가 弱한 證을 치료하고, 咳嗽·逆氣 등의 下焦로 氣가 수렴이 안 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함께 치료하므로 補肺中元氣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考察

生脈散은 張元素의 『醫學啓源』에서 그 處方名이 처음 등장하는 처방으로, 人參, 麥門冬, 五味子로 구성되어 있고, 張元素가 生脈散의 효능을 ‘補肺中元氣不足’이라고 하였고, 李東垣이 ‘補天真元氣’라고 한 이래로 諸家들이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논설들을 토대로 生脈散의 方義에 대해 病因·病機·病證으로 나누어 考察해 보고, 元氣와의 관련성에 대해 考察해 보겠다.

#### 1. 生脈散의 方義에 대한 分析

##### 1) 生脈散 方義의 病因

본론의 논설들을 토대로 生脈散 方義의 病因을 분석해보면 生脈散 方義의 病因은 크게 內因과 外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內因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張元素의 논설에서 肺中伏火라고 했고, 李東垣의 논설에서 脾胃虛弱이라고 했으며, 柯琴의 논설에서는 급히 元氣를 복돋는다고 했고, 張秉成의 논설에서 暑邪가 있더라도 元氣가 充實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元氣不足의 素因이 엿보이고, 王子掇의 논설에서 脈은 心에서 주관하고 肺에서 발원하지만, 반드시 腎陰의 도움을 빌린다고 했고, 君火

의 아래에 陰精이 그것을 받든다고 했으니, 陰精不足의 素因도 엿보인다. 外因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李東垣의 논설 속에서 六七月霖雨, 更逢濕旺, 助熱爲邪를 말했으니, 6~7월 장마로 인한 濕邪에 더운 날씨로 인한 暑熱邪가 더해진 濕熱邪라고 할 수 있고, 張秉成의 논설에서도 더위에 濕이 없다면 머무르고 엿매이게 하는 근심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病因으로 濕熱邪를 말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李東垣이 ‘火熾之極, 金伏之際’라고 했고, 吳崑이 ‘酷暑橫流’라고 했으며, 汪昂이 ‘炎暑’라고 했고, 馮兆張이 ‘火氣赫曦則金爲所制’라고 했으며, 吳謙이 ‘暑熱傷肺’라고 한 것으로 보아 濕邪가 결부되지 않고 몹시 무더운 暑熱邪만으로도 生脈散의 病因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張元素의 논설에서는 肺中伏火라고 했는데, 이는 元氣不足의 內因에다가 暑熱邪에 의한 外因으로 火克金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內外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素問·刺法論』에서 “正氣存內, 邪不可干.”<sup>95)</sup>이라고 하여 正氣가 내부에 존재하고 있으면 邪氣가 간섭할 수 없다고 했고, 『素問·評熱病論』에서 “邪之所湊, 其氣必虛.”<sup>96)</sup>라고 하여 邪氣가 모이는 곳에 그 氣가 반드시 虛하다고 했는데, 生脈散의 病因을 元氣의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肺中伏火, 脾胃虛弱, 元氣不足, 陰精不足 등은 모두 겉으로 보기에 上焦·中焦·下焦 각각의 元氣不足이지만, 앞의 張元素의 글에서 三焦之氣를 나누어 말하자면 다르지만, 그 실질은 하나라고 한 것과 같이 몸 전체의 元氣不足이 모두 內因이 될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暑熱邪 및 濕熱邪의 外因을 만나 火克金에 의해 肺金이 가장 많은 손상을 받으므로 上焦肺가 病因으로 부각되었다.

##### 2) 生脈散 方義의 病機

본론의 논설들을 토대로 生脈散 方義의 病機를 분석해보면 李東垣의 『脾胃論』 논술이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李東垣은 脾胃虛弱者가 6~7월에 물이

94)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1055. “五味子: 味酸, 性溫, 無毒, 降也, 陰也. 其用有四: 滋腎經不足之水, 收肺氣耗散之金, 除煩熱生津止渴, 補虛勞益氣強陰.”

9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85.

9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24.

불어나고 장마비로 모든 사물이 적서짐에 사람도 땀이 나서 옷을 적시면 몸은 무거워지고 숨은 짧아지며 심하면 四肢가 痿軟해지고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며 다리를 절며 눈앞이 깜깜하여 쓰러질 것 같은 것은 腎水와 膀胱이 모두 고갈된 형상으로 肺氣를 滋養하여 水의 上源을 補한다고 하였고, 肺와 表裏를 이루고 있는 大腸도 陽金인 庚을 붙여 庚大腸이라고 칭하면서 水의 上源을 補하면 大腸도 영향을 받아서 邪熱을 받지 않아 땀이 많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濕熱邪로 인하여 津液이 망실되면 七神이 의거할 곳이 없게 되고, 『素問·六節藏象論』의 “津液相成, 神乃自生.”<sup>97)</sup>을 인용하면서 津液이 되살아나야 정신도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였다. 만약 땀을 많이 흘리는 등 津液을 망실하고 濕의 時令이 심하면 清肅之氣가 망실되어 燥金인 肺가 갇히게 되고, 肺金이 갇혀서 肝木을 제어하지 못하면 風濕이 서로 부딪혀 골절통과 온몸이 다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孫思邈이 5월에 항상 五味子を 복용한다고 한 것은 丙火를 瀉하고 庚大腸을 補하며 五臟의 元氣를 보익하기 위함이라면 濕熱邪를 만나면 西方과 北方의 차고 맑은 기운이 끊어지는데, 聖人께서 법도를 세우 여름에 天元의 眞氣를 補해야 하며 여름에 찬 것을 먹는 것이 이것이라고 했다. 生脈散은 비록 張元素가 『醫學啓源』에서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李東垣은 生脈散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도 발전시켰다. 西方과 北方의 차고 맑은 기운이라는 것은 서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차고 맑은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의 西方 肺金의 金氣와 北方 腎水의 水氣를 말하고, 熱邪에 의해 火克金하여 肺金이 손상을 받고 濕邪에 의해 土克水하여 腎水가 손상을 받으면 肺金과 腎水가 곤경에 처한다. 肺金은 『素問·經脈別論』의 津液 대사에서 胃에 들어간 飮이 脾로 이동하고 다시 肺로 귀속됨에 肺의 通調水道 과정을 통해 노폐물을 폐기함으로써 飮의 순도를 높여 液(=水精)을 만드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補水之源이라고 하면서 중요시 하였다. 만약 火克金에 의해 肺金이 손상을 받아 肅

降과 通調水道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정제된 液(=水精)은 점차 고갈되므로 腎水와 膀胱이 모두 고갈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腎水와 膀胱의 단계에 미치지 전 단계인 肺金의 단계, 즉 水之源인 肺를 補하여 液(=水精)이 고갈에 이르지 않게 治未病해야 한다. 聖人들은 이를 여름에 찬 것을 먹어서 天真元氣를 補한다고 했는데, 生脈散을 복용하여 ‘夏食寒’함으로써 水之源인 肺를 補하여 氣를 잘 수렴하고, 정제된 液도 잘 수렴하여 三焦가 氣液代謝를 통해 온몸에 元氣를 잘 퍼뜨리고, 이에 따라 三焦가 잘 통해져서 元氣가 보충됨을 말한다.

生脈散 중 人參에 대해 張元素와 李東垣은 補元氣·益元氣라고 하여 직접적으로 元氣를 補하고 있음을 말하였고, 人參이 補脾함으로써 土生金하여 補肺하면서 동시에 生津止渴하여 津液이 相成함으로써 神이 自生하여 元氣가 회복되기도 한다. 麥門冬에 대해 張元素는 生脈保神을, 李東垣은 補心不足을 말하여 元氣와 같은 층차로 설명되는 神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補元氣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甘寒潤燥하여 清肺함으로써 氣와 液의 清肅을 도와 三焦가 氣液代謝를 통해 온몸에 元氣를 잘 선포시키고, 三焦가 잘 통해져서 元氣가 보충된다고 할 수 있으며, 五味子에 대해서 둘 다 生脈散 약물 구성에 黃芪와 黃蘗을 추가하면 精神과 元氣(神氣)를 충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斂肺하여 氣와 液을 수렴함으로써 三焦가 氣液代謝를 통해 온몸에 元氣를 잘 선포시키고, 三焦가 잘 통해져서 元氣가 보충된다고 할 수 있다.

張元素가 火克金에 의해 바로 손상을 받는 肺氣를 補한다, 즉 補肺氣라고 제한적으로 말하지 않고, 元氣의 의미를 살려서 ‘補肺中元氣不足’이라고 한 것은 肺中の 元氣를 되살려 인체의 氣機가 저절로 돌아가게 함을 도모한 것이다. 앞의 주요 本草書와 『東醫寶鑑』에서 生脈散 구성 약물의 效能主治를 살펴보았을 때 元氣를 補한다고 할 때 補元氣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補五臟, 安五臟, 養五臟이라고 하여 五臟之氣를 補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른다고 했는데, 補五臟 등을 補元氣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元氣가 인체의 근원적인 氣로 腎間

9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36.

動氣라고도 하며, 後天 水穀之氣에 의해 계속해서 보충이 되며, 三焦가 氣液代謝를 통해 氣液을 선포하여 元氣를 五臟六腑와 十二經絡에 잘 선포시키고, 三焦가 잘 통해져서 元氣가 보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安精神·定魂魄도 補元氣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李東垣이 元氣, 眞氣, 神(神氣)을 같은 층차에서 두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張元素와 李東垣이 元氣를 강조한 이래로 諸家의 논설에서 대부분 肺를 강조하면서 元氣의 중요성을 말하였음을 알 수 있고, 元氣의 근원을 말하기 위해 腎을 강조하거나 흠어진 陽氣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의 강조를 위해 守陰을 강조한 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生脈散의 病機를 元氣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肺中伏火나 脾胃虛弱이나 元氣不足이나 陰精不足 등 元氣不足의 상황에서 暑熱邪나 濕熱邪를 만나 肺의 氣機가 火克金の 相克 관계에 의해 가로막혀 水之源이면서 一身의 元氣를 總攝하는 肺가 通調水道하고 肅降하며 治節하는 것과 같은 清肅之氣를 제대로 운행하지 못해 정체되어야 할 液(=水精)이 고갈되어가는 것이다.

### 3) 生脈散 方義의 病證

본론의 논설들을 토대로 生脈散 方義의 病證을 분석해보면 張元素의 논설에서는 肺中伏火, 脈氣欲絶이라고 했고, 李東垣의 논설에서는 骨乏無力, 形如夢寐間, 朦朧如煙霧中, 不知身所有, 身重短氣, 四肢痿軟, 行步不正, 脚軟, 眼黑欲倒, 汗大泄, 骨節煩疼, 一身盡痛 등을 말했으며, 吳崑의 논설에서는 多喘少言을 말했고, 柯琴의 논설에서는 外無寒이라고 하여 바깥으로 외감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惡寒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汪昂의 논설에서는 脈絶短氣 증상 외에도 麥門冬이 止汗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汗多 증상을 염두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馮兆張과 吳謙의 논설에서는 氣短倦怠, 口乾出汗 등의 病證을 기술하였으며, 吳鞠通的 논설에서는 汗多, 脈散大, 喘喝欲脫의 病證을 기술하였고, 費伯雄의 논설에서는 止汗定咳라고 했으니, 汗多, 咳嗽의 病證을 예상할 수 있으며, 張秉成의 논설에서는 肺氣가 왕성하면 脈이 저절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脈自不絶을 통해 暑熱之氣로 肺氣가 타버려 肺虛와 脈微欲絶

의 病證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諸家가 언급한 生脈散의 病證은 汗大泄, 汗多, 形如夢寐間, 朦朧如煙霧中, 不知身所有, 眼黑欲倒, 口乾, 肺中伏火, 喘喝欲脫, 多喘少言, 咳嗽, 短氣(=氣短), 骨乏無力, 四肢痿軟, 行步不正, 脚軟, 骨節煩疼, 一身盡痛, 身重, 倦怠, 外無寒, 脈氣欲絶, 脈散大 등인데, 이들 病證 중에 骨乏無力, 四肢痿軟, 行步不正, 脚軟, 身重倦怠 등은 下焦의 氣가 약함을 의미하고, 汗大泄, 汗多, 形如夢寐間, 朦朧如煙霧中, 不知身所有, 眼黑欲倒, 口乾, 肺中伏火, 喘喝欲脫, 多喘少言, 咳嗽, 短氣(=氣短), 脈氣欲絶, 脈散大 등은 下焦로 氣가 수렴이 안 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病證들을 元氣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우선 여러 諸家들은 生脈散의 病證에 대해서 땀을 많이 흘려 입이 건조하고, 정신이 멍하며,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숨이 짧아지고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 肺의 증상 및 기진맥진으로 몸이 무겁고 무력해지며 권태로워져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리를 질며 땀을 많이 흘려서 脈氣欲絶, 脈散大하는 등 주로 전신 증상들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신 증상들은 肺 자체의 氣가 虛하여 나타나기도 하며, 下焦로 氣가 수렴하지 못하여 液(=水精)이 부족해지거나 심하면 精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동반될 수 있는데, 下焦의 증상으로는 元氣不足으로 인한 大小便 異常과 四肢無力, 厥證 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方義를 病因·病機·病證으로 나누어 考察해보았고, 方義를 한두 단어로 요약한 것이 作用이라고 할 수 있는데, 歷代文獻에서는 汪昂의 『醫方集解』에서 ‘保肺生脈’이라고 했고, 馮兆張은 『馮氏錦囊秘錄』에서 ‘生津止渴’이라고 했으며, 方劑學 교과서에서는 ‘益氣生津, 斂陰止汗’이라고 했는데, 張元素와 李東垣은 生脈散이 元氣 순환을 조절함으로써 肺中の 元氣와 水液의 근원을 補한다고 보았다.

## 2. ‘補肺中元氣不足’의 의미에 대한 分析

『醫學啓源』에서 張元素가 生脈散의 효능에 대해 ‘補肺中元氣不足’이라고 했는데, 張元素가 補肺氣 또는 補氣가 아니라 왜 補肺中元氣不足이라고 하면서

元氣를 강조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元氣는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근원적인 氣로 先天之氣, 腎間動氣<sup>98)</sup>라고도 하는데, 命門을 통해 나와서 原氣之別使인 三焦를 통해 全身으로 元氣가 보내진다.<sup>99)100)101)</sup> 生脈散이 ‘補肺中元氣不足’하는데, 肺의 元氣가 부족하다는 것은 命門으로부터 나온 元氣를 三焦가 잘 선포시키지 못한 결과이고, 三焦가 元氣를 잘 선포시키지 못한 이유는 氣液代謝를 주관하고 있는 三焦 가운데 下焦의 水精이나 精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下焦의 水精이나 精이 부족한 것은 肺의 收斂과 肅降 작용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肺의 元氣가 부족할 때 下焦의 氣가 약한 증상들이나 또는 下焦로 氣가 수렴이 안 되는 증상들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서 下焦의 氣가 약한 경우에는 下焦虛冷으로 遺精滑精하거나 泄瀉를 많이 하거나 小便에 문제가 생기거나 下肢無力 등이 나타나고, 下焦로 氣가 수렴이 안되는 경우에는 煩躁, 多汗, 呼吸의 문제 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生脈散 方義의 病證 중 骨乏無力, 四肢痿軟, 行步不正, 脚軟, 身重倦怠 등은 下焦의 氣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汗大泄, 汗多, 形如夢寐間, 朦朧如煙霧中, 不知身所有, 眼黑欲倒, 口乾, 肺中伏火, 喘喝欲脫, 多喘少言, 咳嗽, 短氣(=氣短), 脈氣欲絕, 脈散大 등은 下焦로 氣가 수렴이 안 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補肺氣라고 하면 上焦 肺에만 한정된 증상들, 즉 咳嗽, 喘息, 少

氣, 短氣 등 呼吸과 관련된 증상들을 치료하는 의미로만 한정이 되므로 張元素가 生脈散의 효능에 대해 ‘補肺中元氣不足’함을 강조했다고 사려된다.

이에 “生脈散은 肺의 元氣를 補하는 藥이다.”라는 것을 명제로 삼아 본문에서 제시한 『本草綱目』, 『東醫寶鑑』, 『本經疏證』 등의 책에서 기재한 人參, 麥門冬, 五味子の 藥性 중 元氣를 補한다는 설명이 있다면 제시한 명제는 참이겠지만, 만약 元氣를 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氣를 補하는 藥으로 판명된다면 명제가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세 책의 藥性を 살펴본 결과 첫째, 『本草綱目』에서 人參에 대해 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主五勞七傷, 補五臟六腑, 保中守神이라고 한 것, 麥門冬에 대해 主治羸瘦·虛勞客熱, 調中保神, 安五臟, 治五勞七傷, 安魂定魄이라고 한 것, 五味子에 대해 主治勞傷羸瘦, 養五臟, 補虛勞, 補元氣不足이라고 한 것 등이 補元氣와 연관된다. 둘째, 『東醫寶鑑』에서 人參에 대해 主五臟氣不足, 安精神, 定魂魄, 療虛損, 補五臟之陽이라고 한 것, 麥門冬에 대해 主虛勞客熱, 補心清肺, 保神 등이라고 한 것, 五味子에 대해 補虛勞羸瘦, 補五臟之氣라고 한 것 등이 모두 補元氣와 연관된다. 셋째, 『本經疏證』에서 人參에 대해 補五臟, 安精神, 定魂魄이라고 한 것, 麥門冬에 대해 主羸瘦, 主虛勞客熱, 保神, 安五臟이라고 한 것, 五味子에 대해 主勞傷羸瘦, 養五臟이라고 한 것 등이 모두 補元氣와 연관된다. 한편 『本草綱目』에서 人參에 대해 治脾胃陽氣不足, 肺氣虛促, 短氣少氣라고 한 것, 麥門冬에 대해 定肺氣라고 한 것, 五味子에 대해 益氣, 主治咳逆上氣라고 한 것 및 『東醫寶鑑』에서 人參과 麥門冬에 대해 治肺痿吐膿이라고 한 것, 五味子에 대해 治咳嗽上氣, 在上則滋源이라고 한 것 및 『本經疏證』에서 人參에 대해 治肺痿, 治肺氣虛促이라고 한 것, 麥門冬에 대해 定肺氣라고 한 것, 五味子에 대해 主益氣라고 한 것 등은 일반적인 氣를 補한다고 할 수 있다. 補五臟, 安五臟, 養五臟 등의 용어도 元氣를 補한다라고만 한정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氣를 補하는 내용도 함께 포괄되어 있을 수 있다. 명제를 소개하면서 上記 세 책에 기재된 세 약의 藥性이 만약 元氣가 아니라 일반적인 氣를 補하는 약으로 판명이

98) 元氣를 先天之氣, 腎間動氣라고도 한다고 했지만, 腎間動氣는 三焦를 통해 몸 안으로 퍼지기 전에 兩腎 사이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강조한 용어이고, 命門을 통해 나온 것을 元氣라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말하는 元氣는 三焦를 통해 이미 몸 곳곳으로 퍼진 것을 지칭한다.

99)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15.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臟六腑.”

100) 車潤根, 金慶鎬, 尹鍾和. 元氣·宗氣·營氣·衛氣에 對한 考察. 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4. vol 3. p.380. “元氣는 原氣라고도 하며, 인체의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氣로 생명 활동의 원동력이고, 광의의 元氣가 광범위한 인체의 각종 氣를 통칭하는 것이라면 협의의 元氣는 腎中精氣에서 化生된 氣로 『難經』에서 말한 原氣와 상통한다.”

101) 최동현. 三焦와 元氣, 津液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6.

된다면 명제가 거짓이 될 수도 있다고 했으나, 일반적인 氣를 補하더라도 『素問·經脈別論』에서 제시한 津液 대사처럼 飲이 胃에 들어간 후 脾로 이동하고, 다시 肺로 귀속된 것이 肺의 通調水道와 肅降 과정을 통해 노폐물을 버려 氣가 정제되면<sup>102)</sup> 液(=水精)이 생성되며, 液이 충분해지면 原氣之別使인 三焦가 전신으로 보내는 元氣도 더 많이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三焦는 『素問·靈蘭秘典論』에서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sup>103)</sup>이라고 하였고, 『難經』에서는 原氣之別使라고 하였는데, 물을 상징하는 坎卦(☵)가 陰爻안에 陽爻가 있어서 물 안에 氣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三焦는 水道를 트이게 한다는 決瀆之官이 되면서도 동시에 氣를 운반하는 原氣之別使도 될 수 있다. 『黃帝內經太素』에서도 ‘下焦氣液’<sup>104)</sup>이라고 하여 三焦가 津液과 氣, 모두에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素問·靈蘭秘典論』의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sup>105)</sup>의 내용 중 ‘氣化則能出’에 대해 明代 命門學派인 張景岳은 氣화의 근원을 下氣海의 天一元氣로 보아 元氣가 충족하면 運化에 항상됨이 있고, 水道가 저절로 滲利해진다고 하였다.<sup>106)</sup> 다만, 일반적인 氣는 우리가 평상시에 음식을 잘 관리하면서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만, 선천적인 元氣는 일정 정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몸의 氣機가 저절로 잘 돌아가도록 하는데, 이것이 元氣의 힘으로,

張元素와 李東垣은 이러한 元氣의 힘에 주목하여 여러 본초서에서 五臟을 補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쁨으로써 元氣를 補한다고 한 人參, 麥門冬, 五味子を 조합한 生脈散을 만들어 肺中元氣不足을 補함으로써 生脈散 病證으로 열나고, 땀이 많이 나고, 몸이 무겁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元氣不足으로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데에 肺의 清肅之氣를 도와 氣를 수렴하고 液(=水精)을 생성하여 三焦의 氣液代謝를 도와 三焦가 元氣를 잘 선포시킴에 따라 근원적인 元氣를 補하여 내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神機를 회복함으로써 인체의 자율적인 氣機 운행이 편차가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動而不息<sup>107)</sup>하게 진행되기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sup>108)</sup>

#### IV. 結論

본 연구에서 生脈散의 方義 및 元氣와의 관련성을 考察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生脈散 方義의 病因을 元氣의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肺中伏火, 脾胃虛弱, 元氣不足, 陰精不足 등 몸 전체의 元氣不足이 모두 內因이 될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暑熱邪 및 濕熱邪의 外因을 만나 火克金에 의해 肺금이 가장 많은 손상을 받으므로 上焦肺가 病因으로 부각되었다.
2. 生脈散 方義의 病機를 元氣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肺中伏火, 脾胃虛弱, 元氣不足, 陰精不足 등 元氣不足의 상황에서 暑熱邪나 濕熱邪를 만나 肺의 氣機가 火克金の 相克 관계에 의해 가로막혀 水之源이면서 一身의 元氣를 總攝하는 肺가 通調水道하고 肅降하며 治節하는 것과 같은 清肅之氣를 제대로 운행하지 못해 정제되어야 할 液(=水精)이 고갈되어가는 것이다. 張元素와 李東垣이 元氣를 강조한 이래로 諸家의 논설에서 대부분 肺를 강조하면서 元氣의 중요

102) 白裕祖. 一元氣와 精氣神의 關係에 대한 考察. 第一次 仙&道 國際學術大會. 2009. pp.31-40. “생명력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肅降과 갈무리의 과정에서 氣가 질적인 변환을 일으켜 精化되는 것이다.”

10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34.

104)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36. “黃帝曰願聞下焦之所出. ……此下焦處也. 濟泌別汁, 循下焦滲入膀胱, 此下焦氣液也. 膀胱, 尿貯也.”

10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34.

106)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pp.66-69. “膀胱有下口而無上口, 津液之入者爲水, 水之化者由氣, 有化而入, 而後有出, 是謂氣化則能出矣. 營衛生會篇曰, 水穀俱下而成下焦,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 正此謂也. 然氣化之原, 居丹田之間, 是名下氣海, 天一元氣, 化生於此, 元氣足則運化有常, 水道自利.”

107) 최동현. 三焦와 元氣, 津液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pp.22-25.

108) 殷哲玟. 李東垣學術思想及其對韓國醫學的影響研究. 南京中醫藥大學 海外博士學位論文. 2004. p.11.

성을 말하였음을 알 수 있고, 元氣의 근원을 말하기 위해 腎을 강조하거나 흠어진 陽氣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의 강조를 위해 守陰을 강조한 견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生脈散 方義의 病證을 元氣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우선 여러 諸家들은 生脈散의 病證에 대해서 喘을 많이 흘려 입이 건조하고, 정신이 멍하며,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숨이 짧아지고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 肺의 증상 및 기진맥진으로 몸이 무겁고 무력해지며 권태로워져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리를 절며 喘을 많이 흘려서 脈氣欲絕, 脈散大하는 등 주로 전신 증상들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신 증상들은 肺 자체의 氣가 虛하여 나타나기도 하며, 下焦로 氣가 수렴하지 못하여 液(=水精)이 부족해지거나 심하면 精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동반될 수 있는데, 下焦의 증상으로는 元氣不足으로 인한 大小便 異常과 四肢無力, 厥證 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4. 肺는 一身의 元氣를 總攝하고, 相傳之官으로 華蓋가 되어 通調水道·肅降·治節과 같은 清肅之氣를 운행하여 氣를 수렴하고 液(=水精)을 생성하여, 三焦의 氣液代謝를 도와 三焦가 元氣를 잘 선포시킴에 따라 근원적인 元氣를 補하여 내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神機를 회복함으로써 인체의 자율적인 氣機 운행이 편차가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진행되기를 도모했기 때문에 張元素와 李東垣이 元氣를 중시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生脈散의 作用을 ‘益氣生津, 斂陰止汗’이라고 하는데, 특히 張元素와 李東垣은 生脈散이 元氣 순환을 조절함으로써 肺中の 元氣와 水液의 근원을 補한다고 보았다.

## Reference

1. 김승모. 신경세포종의 고사에 미치는 生脈散의 효과 및 기전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2. 김의중. Bleomycin 유도 폐섬유화 마우스 모

델에서 生脈散과 Pirfenidone의 효과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3. 羅美 撰. 李飛·武丹丹·黃瓊磁 校注. 古今名醫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4.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5.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6. 李景榮 等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7. 李飛 主編. 中醫歷代方論精選.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98.
8. 이상현. 生脈散과 구성 약물의 성분 분석 및 抗酸化 효능 비교. 대구한의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9. 李時珍 編纂, 劉恒如, 劉山永 校注. 新校注本草綱目 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2002.
10. 林鎭錫, 朴贊國. 鄒澍의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藥理說을 中心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5. vol 9.
11. 문효. 生脈散과 生脈散加味方이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2. 朴贊國 譯注. 改訂版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13.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對한 研究 -許浚의 『東醫寶鑑』을 통하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1. vol 5.
14. 白裕相. 『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5. 白裕相. 一元氣와 精氣神의 關係에 대한 考察. 第一次 仙&道 國際學術大會. 2009.
16. 白裕相, 尹銀卿. 『黃帝內經』의 精, 神과 陰陽變化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1).
17.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 서울. 한국한의약진흥원. 2024.
18. 費伯雄 著, 李鐵君 點校. 醫方論. 北京. 中醫

- 古籍出版社. 1987.
19. 孫云. 生脈散源流衍化及應用. 山東中醫學院學報. 1996. 20(5).  
<https://doi.org/10.16294/j.cnki.1007-659x.1996.05.007>
20. 宋立富. 伏火論. 中華中醫藥雜誌. 2010. 25(2).
21. 신선호. 生脈散이 實驗動物의 心筋細胞에 미치는 影響.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22. 嚴永清, 吳建新, 錢健雄. 生脈散的歷代文獻考查. 中國中藥雜誌. 1989. 14(5).
23. 吳謙 等編. 醫宗金鑑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24. 吳崐 著. 醫方考. 서울. 醫聖堂. 1993.
25. 吳鞠通 著, 丁彰炫 譯. 國譯 溫病條辨. 과주. 集文堂. 2005.
26. 오재근.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의 『증류본초』 활용 - 『향약집성방』 『향약본초』 『동의보감』 「탕액편」을 중심으로 -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5).
27. 王冰 註解, 林億 校注, 孫國中·方向紅 點校.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學苑出版社. 2004.
28. 王世華 外 3人. 基于古籍文獻的生脈散適應病證可視化分析. 中醫雜誌. 2019. 60(9).  
<https://doi.org/10.13288/j.11-2166r.2019.09.007>.
29. 王子接 著, 李飛·武丹丹·黃瓊磁 校注. 絳雪園古方選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30. 殷哲玟. 李東垣學術思想及其對韓國醫學的影響研究. 南京中醫藥大學 海外博士學位論文. 2004.
31. 張介賓 著. 李南九懸吐註釋. 懸吐註釋景岳全書. 서울. 法仁文化社. 2007.
32. 張介賓 著.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編. 改訂版懸吐註釋類經. 서울. 法仁文化社. 2017.
33. 張勝, 譚聖琰, 李生茂等. 生脈散探源. 遼寧中醫雜誌. 2010. 37(10).  
<https://doi.org/10.13192/j.ljtc.2010.10.6.zhangsh.083>.
34. 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수 編著. 改訂版東醫生理學. 과주. 集文堂. 2008.
35. 田思勝 主編. 馮兆張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6.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37. 鄭洪新 主編.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38. 趙子明, 常潔, 常兆生. 人參制劑-生脈散的歷史沿革及現代研究. 長春中醫學院學報. 1994. 10(41).  
<https://doi.org/10.13463/j.cnki.cczyy.1994.04.127>.
39.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上). 서울. 法仁文化社. 2007.
40.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 醫學全書(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41. 車潤根, 金慶鎬, 尹鍾和. 元氣·宗氣·營氣·衛氣에 對한 考察. 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4. vol 3.
42. 최동현. 三焦와 元氣, 津液에 對한 考察.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3.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44. 鄒澍 지음.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上). 서울. 아티전. 1999.
45. 한의학계학 공동교재 편찬위원회 編著. 韓醫方劑學. 과주. 군자출판사. 2020.
46. 項長生 主編. 汪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47. 許浚 지음, 東醫文獻研究室 옮김, 陳柱杓 註釋.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12.
4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49. 생맥산. 승정원일기. 2000. [cited on July 25, 2024]; Available from:  
<https://sjw.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